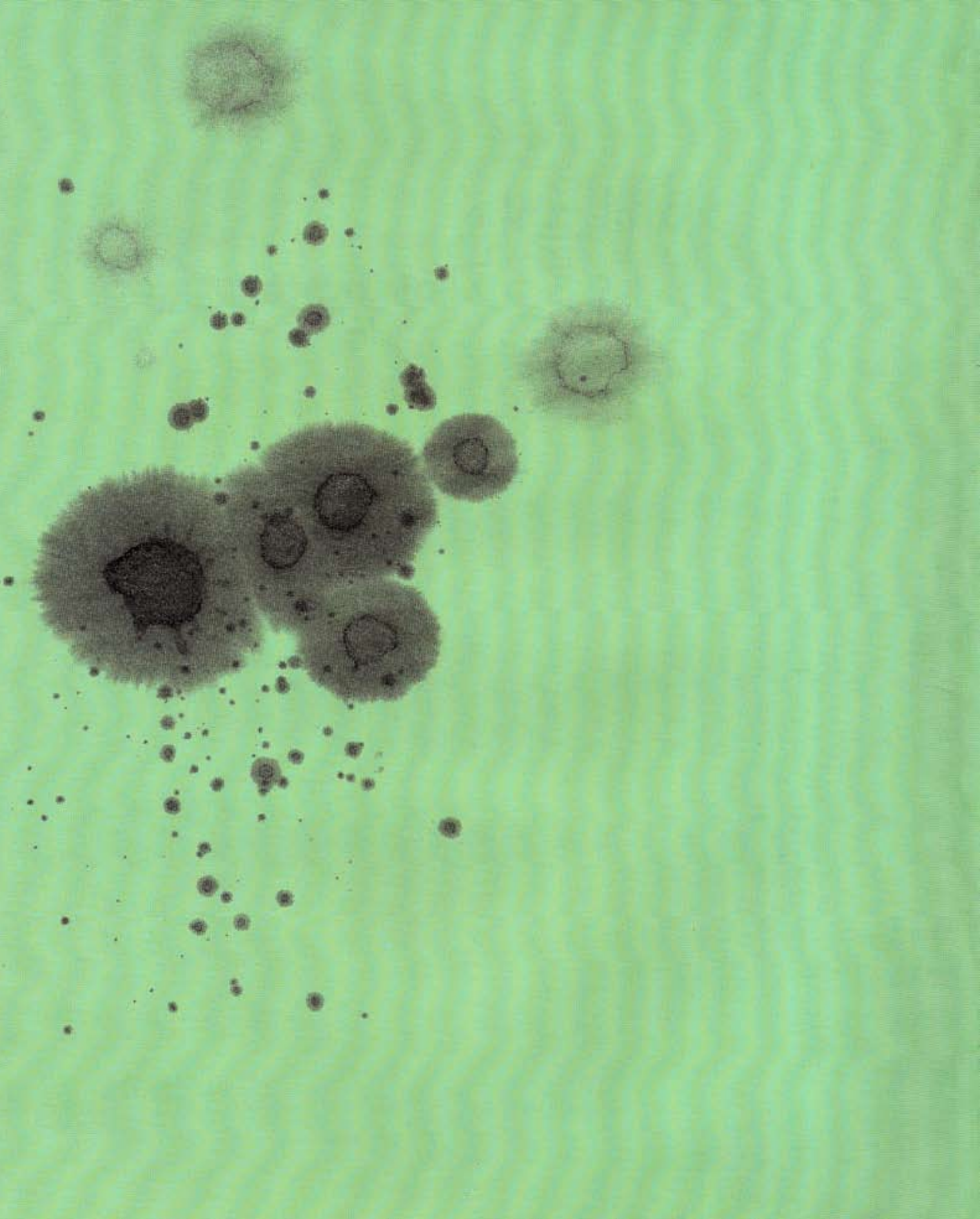


작지만 즐거운, 2006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곡성의 문화예술교육



CONTENTS

- | | | | |
|----|---------------------------------|----|-----------------|
| 07 | 인사말 곡성문화원장/ 김학근 | 26 | - 곡성어린이 연극학교 |
| 08 |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바로알기 | 30 | - 얼썬! 탈춤을 추자 |
| 10 | 곡성문화원 사업소개 | 32 | - 곡성어린이 방송국 |
| 13 | 전국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보고서 | 36 | - 복출부 |
| 14 | 곡성문화원 학교, 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 40 | - 꿈을 키우는 글쓰기 |
| 18 | - 덩더꿍 페스티벌 | 42 | - 곡성 청소년 VJ특공대 |
| 22 | - 우리들짱은 누구? | 46 | - 신나는 마당극 |
| | | 48 | - 만화·애니메이션과 함께! |
| | | 50 | - 식물의 성장, 마음의성장 |
| | | 52 | - 전통미감의 이해 |
| | | 60 | 작가와 詩가 있는 오후 |
| | | 68 | 이모 저모 |



곡성 안과 밖의 문화·예술교육가 및 단체와 협력하여

공연예술, 영상미디어, 생활·전통문화체험 등 다양한 문화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접하게 하여 인성을 함양하고, 풍부한 감성을 지닌 인격을 갖추게 한다.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적인 자기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으로 키워주는 계기를 마련

21세기의 지식기반 사회를 맞이하여 인구 3만5천명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우리고장 곡성의 창의적 인력양성을 위해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및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체험중심의 교육활동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지역교육청과 학교, 자치단체, 전문예술 강사, 문화 시설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얻어 관내 5개 유지원, 5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와 종합체험학습장 및 지역아동센터,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학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학교 안과 밖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무용, 창극, 연극, 탈춤, 방송, 미디어, 마당극, 만화 애니메이션, 리듬합주, 예절, 다도, 천연염색, 만들기 등 14개영역으로 진행 하였으며 학교 밖에서는 전통 생활문화 정착과 곡성문화예술교육 사랑방 운영으로 내실화를 기하여 지역 사회의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도가 높았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각 학교의 정규수업 및 재량활동, 과외활동을 통하여 다양하게 그리고 학교 실정에 맞는 체험 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개별적인 자기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으로 키워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본 문화원에서는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알차고 학생 주도형 학습방법과 체험학습의 발전 그리고 지역사회 문화 예술 교육의 관심도를 높이고, 나아가 지방 문화 예술의 창달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여기며 아울러 이와 같은 사업이 계속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곡성문화원장 김 학 근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바로알기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창의성은 세계 모든 국가에서 국가 발전의 근본적인 화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창의적인 인력 양성을 위한 가장 주요한 전략인 문화예술교육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과 소득향상 그리고 주5일 근무제의 시행 등에 따라 삶을 즐겁고 의미 있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7차 교육과정에서의 체험중심의 교육활동 강화 등 교육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고 타인과의 공감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2004년 11월에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동으로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준비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부터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협력하여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자체의 여건만으로는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학교가 인근의 문화기관, 전문예술단체 등과 연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4개 지역(부산, 부천, 여주, 평창)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2005년에는 총 64개 지역으로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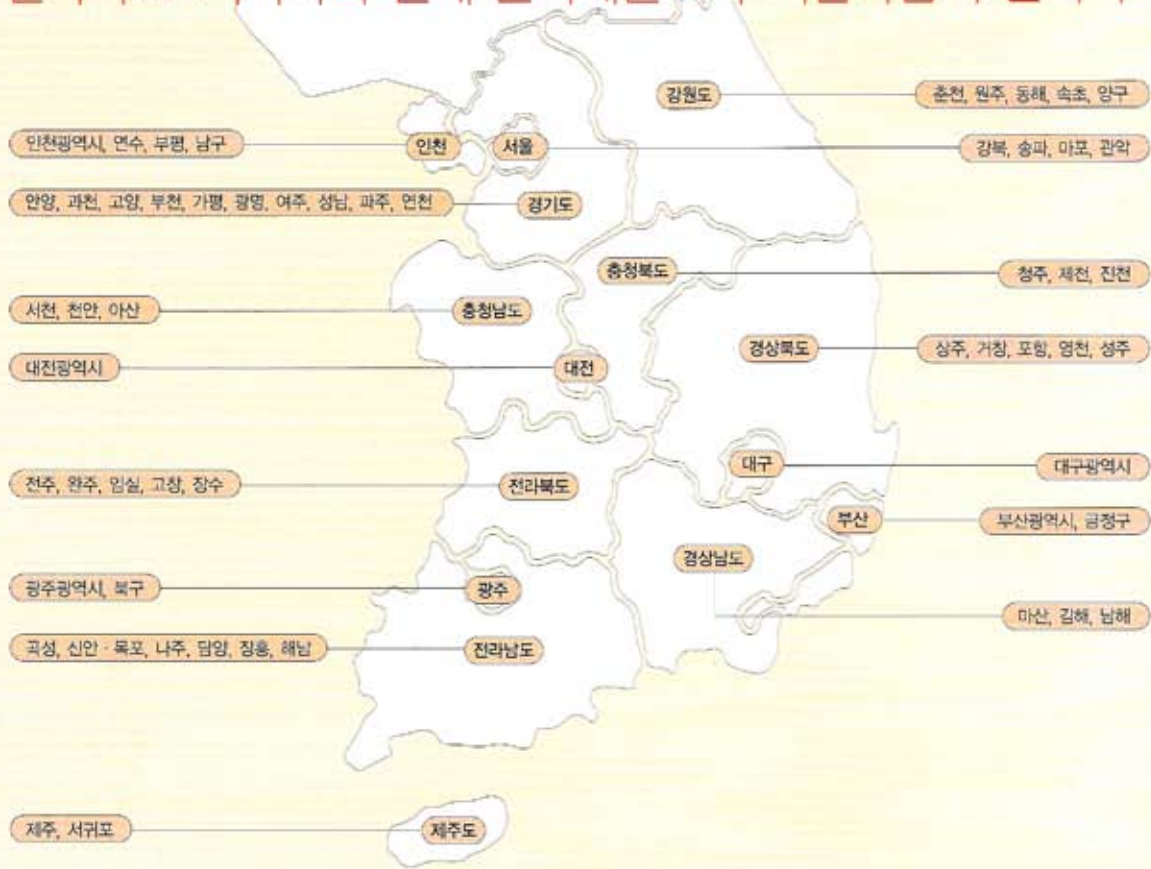
대되었으며, 문화예술 현장과 연계되어 학교와 문화공간을 넘나드는 즐거운 문화예술교육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교육청의 협력과 자원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시설, 대학, 전문예술단체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기관·단체들이 인간 학교와 연계하여, 각 학교의 정규교과 수업 및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참여형·체험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교육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은 개개인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미적 가치를 실현하고 여가 시간을 자기 주도적으로 즐길 수 있게 해주며, 청소년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 자기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감수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오감으로 느끼는 미적 체험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여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성숙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의 창의적인 인적자원 확보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법에 따라 지역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지정되고 '지역문화예술교육협의회'가 구성되어 현재 지역사회와 학교 등 다양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을 더욱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좀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전국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추진지역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추진체계



곡성문화원 사업소개

1. 사업명 : 2006년 학교 -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곡성 안과 밖의 문화·예술 교육 전문그룹과 협력하여 공연예술, 디자인, 영상미디어, 생활, 국악, 전통문화체험등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완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실행
 - > 곡성문화원을 중심으로 하여 곡성안과 밖의 문화자원, 지자체, 학교(곡성교육청 및 초·중·고등학교)가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영역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접촉의 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완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함
- 인구 3만5천 규모의 농어촌 지역의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모델의 가능성 모색
 - > 지역 자체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기에 어려운 조건에 놓여있는 인구 3만 5천 규모의 농어촌지역의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파일럿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학교 교육과 지역 동아리 활동 등 간의 다양한 연계가 가능한 교육모델 모색
- 곡성의 문화예술교육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안정적 사업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서의 발전 가능성 도모
 - > 첫째, 지역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은 물론 매개자, 예술인강사 등 지역 내 인적자원 개발의 측면과
 - > 둘째, 곡성의 문화기반시설, 예술단체, 축제, 관광자원 간의 지역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향후, 군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도모함

3. 사업 개요

- 기간 : 2006년 4월 ~ 2007년 2월
- 주최·주관 : 곡성문화원
- 장소 : 곡성군 5개 유치원, 5개 초등학교, 3중학교, 곡성종합체험학습장 1곳 등 총 13개 학교 및 종합체험학습장 1곳

4. 사업 내용

1) 학교 안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주1회 총 10주 30사수를 기본으로 하여 정규 교과과정으로 운영

| 영역 | 프로그램명 | 교육대상 | 세부내용 |
|----|----------|--------|--|
| 무용 | 덩더쿵 페스티벌 | 고달초부채춤 | - 우리의 전통 춤을 시대에 맞도록 새로운 시각으로 각색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고도로 절제된 기교와 담백한 맛을 담고 있는 한량춤 전수하고, 널리 알림 |

| 영역 | 프로그램명 | 교육대상 | 세부내용 |
|-------------|--------------------|---------------------|---|
| 창극 | 우리들 짝은 누구 | 오산초 창, 창극 | - 아이들에게 동양의 오페라인 판소리를 단계적으로 가르치며, 흥미유도의 방안으로 코미컬과 판타지가 어우러진 서양 뮤지컬의 장점을 도입한 교육의 실행 - 판소리 수궁가의 '상좌다름 대목'을 중심으로 하여 전통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도는 넓힘은 물론, 사회문제시 되고 있는 이지에 현상의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함 |
| 연극 | 곡성 어린이 연극학교 | 중앙초 강아지 통 심청전 | - 연극을 통해 예술창조 감수성의 개발하고 공연작품의 공동 창작과정을 통해 사회성 함양 - 공연을 통해 마무리함으로써 창작과정의 완성도와 성취감 확보 |
| 탈춤 | 업쭉! 탈춤을 추자! | 죽곡초 탈춤 | - 장단배우기, 봉산탈춤, 고성오광대놀이 등을 통해 우리 탈춤의 장단과 특성을 이해 - 나물 소재로 하여 탈 만들기 과정을 통해 나물 표현하고 상대방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움 |
| 방송 | 곡성 어린이 방송국 프로젝트 | 석곡초 방송 | - 시나리오부터 편집에 이르기까지 뉴스, 혹은 다큐멘터리 제작과정을 통해 창작의 진수를 체험, 자아 표현 능력을 개발 |
| 복춤 | 복춤부 | 석곡초 | - 복춤을 통하여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발전 하려는 마음을 가지며,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가진. - 전통적인 리듬을 체험하며 전통 음악 언어를 익히고, 음악적 아름다움을 느끼며 연주할 수 있음 |
| 글쓰기 | 꿈을 키우는 글쓰기 | 석곡 아동복지센터 | - 자기 및 친한 친구를 소개함으로써 생각을 열고 상상력을 바탕으로 나만의 동화를 쓸 수 있음 |
| 미디어 | 곡성 청소년 VJ 특공대 | 육과 중학교 | -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다큐멘터리 제작과정을 통해 미디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의 표현능력 함양과 지역 의식을 고취 |
| 마당극 | 신나는 마당극 | 석곡 중학교 | - 민요, 풍물 장단 등을 통해 우리전통음악을 이해 - 마당극 작품을 실행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흥과 열을 이해 |
| 만화 애니메이션 | 만화 · 애니메이션과 함께! | 곡성 중학교 | - 기본적인 제작원리 및 여러 제작방법을 이해하고 만화, 애니메이션이라는 예술장르에 대한 이해의 폭을 증대시킨 - 아이디어와 공동작업이 육되는 실기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동심의 개발을 유도함 |
| 리듬 합주 | 악기야 놀자! | 유치원생 | - 여러 가지 악기를 이용한 리듬의 이해 |
| 미술 | 식물의 성장 마음의 성장 | 유치원생 | - 식물을 눈으로 보고, 코로 향기를 맡으며, 손으로 만지고, 머리를 써서 움직이는 등의 감각을 활용하며 자연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식물을 보살핌으로써 식물과의 교감을 갖는다. - 동일한 목적을 향해 여러명이 함께 작업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배우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협력하고 책임을 분담하게 됨으로 대인관계 향상 과 책임감, 자립심이 향상되며 권리존중과 협력을 배우게 된다. |

2) 학교 밖 문화예술 체험학습 프로그램

가. 곡성종합체험학습장

※ 1학기 60회(회당 기본 3시수) 2학기 60회 총 120회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 영역 | 프로그램명 | 교육대상 | 세부내용 |
|----------------|----------|-------------|--|
| 전통 생활 문화 | 전통미감의 이해 | 초등학생 중학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성종합체험학습장과 연계하여 전통음악, 다도, 천연염색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 정규교과과정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 이외의 곡성 관내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문화인프라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함 |

나. 석곡아동복지센터

3) 지역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 4~10월 중 매 짝수달 첫째주 목요일 오후 2시~5시 총 4회 운영

| 프로그램명 | 세부내용 |
|------------------|---|
| 곡성 문화예술교육 사랑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성 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단체, 학교교사 등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함 - 곡성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중 우수한 교육사례의 소개, 공유, 소통의 장으로 활용 |





2006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보고서

곡성문화원 학교,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글/조준원(곡성문화원 사무국장)

2005년 12월 28일 오후 2시 전남 곡성군 곡성문화원에서 주최한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인 동요뮤지컬 '푸른 하늘 은하수', 어린이 창작영화 '이야기가 있는 곡성', 내 고향 곡성 청소년 VJ, '무지개 빛 건축세상' 등 공연 및 전시를 통한 합동 발표회를 곡성군민회관에서 가졌다.

이론적인 학습보다는 체험을 통한 생생한 정보를 습득하고 발표함으로써 교육관계자와 학생, 학부모가 하나 되는 새로운 교육풍토를 마련하게 되었다.

미처 관망하지 못한 학생들과 교육관계자 및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2006년 3월 29일 곡성군청의 지원(지원금: 일천만원)과 곡성교육청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관내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사, 문화예술 담당자, 일반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요 뮤지컬 '푸른 하늘 은하수', 창작 동화 구연 및

옛 설화 등을 소재로 한 창작 노래, 어린이 창작영화 "이야기가 있는 곡성", 등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가운데 성황리에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앙코르 발표회를 가졌다.

곡성 군민 모두가 우리 고장인 곡성교육과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게 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지리산과 섬진강 중상류에 위치한 우리 곡성은 맑고 푸른 강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강바람과 산새소리를 들을 수 있다.

우리 고장 곡성은 지역주민, 교육기관, 행정기관이 협력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을 2004년도에 성공적으로 시행하였다.



학교통폐합을 함으로써 교육시설의 현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훌륭한 시설에 걸 맞는 질 높은 교육을 위한 S/W가 부족한 현실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인교육차원의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곡성문화원에서는 지역 자체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의 교육 강사진 그룹을 확보하기에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구 3만 5천여명 규모의 농어촌지역의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모델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더불어 곡성의 역사문화자원과 축제 및 관광자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교 안과 밖에서 가능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촌의 문화예술교육분야 성공모델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곡성의 문화예술단체와 곡성군, 곡성교육청, 관내학교와 연계하여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사업 설명회 등의 과정을 통해 시범학교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2005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동요 뮤지컬 만들기 프로그램인 "푸른 하늘 은하수"가 곡성중앙초등학교에서 시행되었다. 이는 우리 것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동요의 아름다운 운율과 가사를 익히는 과정에서 노래부터 말하기, 몸짓까지의 공동창작과정을 통해 사회성과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협동심을 배우고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공연을 통해 교육과정을 마무리함으로써 창작의 완성도와 성취감을 만끽하고 자신감을 얻게 하는 복합적인 체험프로그램이다.

우리민족의 정서와 식민지 시대를 이겨낸 불굴의 정신이 담겨있는 동요를 통해 민족의 정서와 운율을 배우며 공연을 보는 어른들에게는 마음의 고향인 동심을 되찾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연극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곡성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극축제를 벌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삼기초등학교에서 시행된 건축교육프로젝트로 "무지개 빛 건축세상"이다. 건축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건축의 기본 개념, 빛, 공간, 구조의 개념, 기능에 대해 알고 '살고 싶은 우리 마을'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둠으로 공동작업을 진행함으로써 팀원들 간의 의사소통이나 협동심을 기르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표현해내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과 더 나아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지역에 대한 이해와 함께 애郷심을 증대시킬 수 있다.

*단순한 미술교육의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이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서 학교나 학원 등에서 할 수 없는 효과적인



미술교육이 되었으며 이러한 건축을 통한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창의력과 협동심, 곡성어린이들이 곡성에 대한 애郷심을 굳건하게 다질 수 있었다.

<건축 프로젝트를 하면서 재미있었고, 우리가 직접 집도 만들어 보고 망치질도 해보고, 톱질도 해보고, 꾸미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길 만들기도 하여서 참 즐거웠고, 선생님들도 잘해주시고, 다 멋지게 완성돼서 기뻐고 건축에 대하여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우리들이 쓰고 있는 건물도 그냥 공사 아저씨들이 그냥 할 수 있으니까 만들었다고 생각하였는데, 건축을 하면서 우리들이 쓰고 있는 건물을 힘들게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삼기초등학교 5학년 김은진)

<처음에는 그냥 “만들기니까 미술시간 때처럼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크다 보니 전혀 느낌이 다르고 신났습니다. 심지어는 꿈이 바뀔 뻔 하였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아지트 만들었습니다.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망치질도 해보고 톱질도 해보고 의자도 만드는 등 솜씨도 좋아지고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다 만든 작품을 보니 뿌듯하고 또 하고 싶었습니다.>

(삼기초등학교 6학년 전진)

세 번째는 어린이 영화창작교실로서 “이야기가 있는 곡성 만들기”가 곡성중앙초등학교에서 이루어졌다. 영상매체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곡성에서 실제로 영화작품을 기획, 제작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교육프로그램으로 참가 학생이 직접 시나리오부터 촬영, 연기, 감독, 편집 등의 영화제작 전 과정에 참여하여 공동창작방식으로 영화를 만들고, 미디어 읽기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환경 및 미디어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함

으로써 자기 표현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심청이를 찾아서, 내가 만드는 곡성 자랑거리, 기찻길 옆 곡성이야기, 곡성의 역사 이야기 등 나와 나를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고 곡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계기로 활용한다.

*영상미디어교육이 학교의 정식 교과목으로 도입되는 단계 이전에 현재 학교 현장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활용해서 좀 더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유용하고 실질적인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영화를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보니 ‘정말 이걸 잘 해야겠다, 이걸 잘한 것 같다’ 라고 고칠 것도 있었고 잘한 것도 있어서 ‘내가 이런 걸 했더니 정말 대단하다’ 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노력과 웃음과 행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린 그리고 각자 다 역할을 한번씩 해봤는데, 감독은 그냥 컷만 하면 되고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참 많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영화는 2시간정도이지만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10년 아니 100년이나 걸린 만큼 열심히 한 것입니다. 저도 영화를 볼 때는 ‘별로 안 힘들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영화를 만들고 나서 오랫동안 걸린 만큼 열심히 한 것을 알았고 앞으로 영화를 볼 때는 ‘이런 것은 찍을 때 힘들었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이라도 생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곡성중앙초등학교 5학년 장미림)

네 번째로 내 고향 곡성 청소년 VJ육성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곡성중학교에서 시행되었다.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 기술을 키우고 다양한 매스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접하는 정보들을 해독하

고 분석하게 함으로써 미디어 내용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입시 위주의 경쟁적 학교생활을 탈피하여 곡성의 현재 모습을 청소년의 시각에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재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창조적 사고력, 팀원들 간의 조직력, 사회성 배양과 더 나아가 곡성의 문화 지역 사회를 영상으로 표현함으로써 지역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영상미디어교육의 활성화와 정착을 위한 이론적인 연구를 수반하여, 영상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통합적인 영상미디어교육의 모델을 구축하게 되었다.

다섯 번째인 곡성문화원과 곡성교육청 및 학교, 학생, 학부모가 일체가 되어 진행하고 있는 곡성종합체험학습장(프로그램명 : 전통미감의 이해)은 곡성군 소재 유치원 및 초·중학교와 유·초·중학생 전원이 참여함으로써 곡성군 및 학부모, 교육관계자들에게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의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곡성교육청에서 운영하면서 활성화 되지 못한 곡성종합체험학습장을 곡성문화원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통음악, 사물놀이, 다도,



천연염색, 목공 등을 교육함으로써 우리 조상들의 삶이 투영되어 전해 내려오는 전통문화와 예술을 각 분야의 체험을 통해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하며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는 데 든든한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의 취지를 잘 살려서 이론적인 학습보다는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교육을 통해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바른 이해와 다양한 교육적 체험을 통해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요즘처럼 정보의 홍수시대에 만연되고 있는 이기적 개인주의 성향을 이제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곡성체험학습장인 관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급 등 각 학년별 또는 학급별 모듬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책임감은 물론 바른 인성과 정서적 함양, 올바른 인격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앞으로도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 새싹들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 본다.

*2006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은 전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곡성 내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및 문화관광부 강사풀제에 참여하고 있는 전라지역 강사진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문화예술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더불어 우리문화 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우리문화와 곡성군 고유의 전통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농촌지역의 특화된 곡성군 문화예술교육의 모범적인 모델로 시범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학교 안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딩더공 페스티벌”

1. 교육명 덩더공 페스티벌

2. 세부항목

- 우리의 전통 춤을 시대에 맞도록 새로운 시각으로 각색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고도로 절제된 기교와 담백한 맛을 담고 있는 한량춤(글방도령)

3. 교육개요

- 기간 : 2006년 4월 ~ 2007년 2월
- 장소 : 고달초등학교
- 강사 : 김해진 -목원대 교수(이상준선생님 수제자)
김영신



PROGRAM 01 고달초등학교

4. 교육사례 요약

- 외래문화의 홍수 속에 춤 역시 댄스 등만 자주 접하는 아이들에게 고유의 춤을 가르쳐, 아름다운 전통예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특히 고도로 절제된 기교와 담백한 맛을 담고 있는 한량춤 시대에 맞게 각색하여 가르침으로 우리 고유의 예술혼을 찾아 개발함은 물론 학생들에게 후세의 지표를 열어주고자 함에 그 뜻이 있다.

“덩더꿍페스티벌”

강사 김영신

전통춤 보급을 위해 유치원 때부터....

예나 지금이나 우리전통문화는 어른이나 아이들에게 아직 열려있지 않고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상태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은 유치원 때부터 자기나라 춤과 음악을 가르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가부끼, 중국은 경극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국악교사들로 이루어진 유치원 때부터 초, 중, 고 까지 전문화를 위해 더욱더 정부와 교육기관에서 많은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고달초등학교 가는 길은 기대감.....

2006년 4월 첫 수업을 하기위해 교문을 들어섰을 때가 생각난다.

전체 학생수 44명의 작은 학교로 방과 후 1,2,3학년 1시간 4,5,6학년 1시간씩 2시간을 했었다. 처음엔 무용치마를 입고 버선을 신고 있었던 나를 보고 신기한 듯 쳐다보고 무슨 말인가 하고 싶은 듯 내 눈을 바라보며 내 주위를 맴돌던 순박한 아이들이었다.

그러기에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따라 하겠다는





자신감도 있었다.
물론 힘이 들지 않았던 건 아니다.

난생 처음 접해본 느릿느릿한 한국 춤, 느리기 때문에 지루함이나 재미없다고 느낄 수 있는 한국 음악, 때문에 자칫 집중력이 떨어져 보인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기특하게도 잘 참고 견뎌 11월 동악예술제, 학예발표회, 2월 중순의 종합 발표회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이다.

공연을 하면서 수업을 하기위해 학교에 다닐 때도 그랬지만 학생들이 어떻게 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설렘과 기대감, 기다림으로 임했고, 수업을 마치고 교정을 빠져나올 때에 감정은 서운함과 아쉬움으로 머릿속 내내 아이들 생각으로 꽂차 있듯이 공연 때에도 그 마음 그대로였다. 무용 공부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무용으로서 처음 서 본 무대이기에 아직은 서툴겠지, 해가 바뀌면 더 나아지

리라 여러 번 위안을 삼으며 동악제를 마쳤고, 마지막 2월 종합 발표회 댄 좀 더 진지하게 좀더 여유 있는 자세들로 춤추기 시작해 비로소 자기 몸과 마음이 되는 자기 것이 된 듯한 그런 자세들이 보기 좋았다.

마지막으로

우리한국무용과 한국 음악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한국정서에 맞는 전통과 문화와 역사, 그리고 예술이기에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다가가기 쉽고 더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국악을 사랑하는 애호가와 지도자와 관계당국들은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국악, 무용계의 앞날은 더욱 밝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안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전통창극과 서양의 뮤지컬을 접목한

“신뮤지컬 우리들의 짱은 누구?”

1. 교육명 우리들 짱은 누구

2. 세부내용

- 우리의 전통 창극에 서양의 뮤지컬을 접목한 신뮤지컬 제작발표
- 알고 있었니? 난 몰랐어. 자라가 토끼간 빼내려고 하던 이야기

3. 교육개요

- 기간 : 2006년 4월 ~ 12월
- 장소 : 오산초등학교
- 강사 : 황연수



PROGRAM 02 초등학교

4. 교육사례 요약

- 아이들에게 동양의 오페라인 판소리를 단계적으로 가르치며, 흥미유도의 방안으로 코믹함과 판타지가 어우러진 서양 뮤지컬의 장점을 도입한 교육을 실시한 후, 판소리 수궁가 중 가장 흥미롭고 다양한 배역들이 등장하는 "상좌다툼 대목"을 직접 발표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넓힘은 물론, 함께 참여함으로써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지메 현상 극복에 도움을 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우리들 짱은 누구?”

강사 황연수

“큰소리로 노래하자 가슴대해 소리치자 모든 스트레스도 확 날리자 꾸나. 우리의 소리로..”



광주에서 3~40분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 학교였지만 분위기는 도시의 학교들과는 사뭇 달랐다. 전교생이 50명 이내로 먼 소재지의 학교 학생수가 그렇게 밖에 안 된다는 게 놀라웠다. 우리 농촌의 현실이었고 점점 도시위주로만 편형 되어 가는 교육현실이 느껴진다.

틈만 나면 먼지를 일으키며 장난치고 옆 사람과 잡담을 하면서도 선생님이 말하는 모든 걸 다 듣고, 이해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 했다.

금방 혼나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다가도 돌아서서 “선생님!” 하고 달려든다. 참 순수하고 해맑은 아이들이다.

2006년

내가 맡은 아이들은 1,2,3,4학년 전체가 26명 정도 처음. 창극뮤지컬 ‘우리들의 짱은 누구?’ 라는 주제

를 갖고 수업에 임했지만 첫날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머릿속에서는 약간의 계획수정을 해 나가고 있었다.

이 아이들이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program으로 짜 나가기로 했다.

우선은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했다.

모든 아이들에게 사실 판소리를 많이 가르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소질이 있는 아이가 수년을 갈고 닦아야 비로소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일 수 있는 것이 판소리인 것이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소리를 더욱더 어렵게 여기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은 단가, 사철가를 보기로 했다. 처음으로 배워보는 소리인지라 낯설어 했지만 차츰 목소리도 커지고 증모리 장단도 이해하게 되었다.

단가 하나를 배우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한 학기를 그렇게 보낼 수 없기에 앞부분일부만 우선 배우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한 학기를 그렇게 보낼 수 없기에 이 부분 일부만 우선 배우게 했다. 또, 판소리의 ‘아니리’를 이해하게 하였다.

우리의 것이고 우리 조상의 위대한 유산인 판소리가 아이들에게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노래라는 게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아니리’를 배울 때는 “키득키득” 웃으면서도 재미있어 했고 이내 곧 잘 따라했다.



우리민요를 배우는 것은 더 흥미로워했고 우리 음악을 배우는 시간만큼은 참 즐거운 시간이고,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으로 느끼도록 유도하였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학원이다. 뭐다 해서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학교도 예외가 아니라서 학교가 끝나기 무섭게 학원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인지능력이 조금 떨어진 아이들도 그 시간만큼은 즐거워했고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 발표시간도 자주 갔고 학년별로 지켜보기도 하였다. 1학년 아이들이 두 명 있었는데 처음엔 속으로 기어들어 가던 목소리가 겨울 방학이 다가올 때쯤에는 우렁차고 힘 있는 소리로 바뀌어 있었고, 서로 잘 하려고 경쟁하는 모습도 보여 보람 있었다.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서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었던 한 아이도 이 시간만큼은 훨씬 씩씩하게 수업에 임했고 소리도 자신 있게 발표하는걸 보고 기뻐했다.

착한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을 돌이켜보니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된다.

일본에서 온 손님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참관 할 때는 제법 의젓하게 질서를 지켜주었다.

악기가 부족했지만 돌아가면서 북(고뱌)치는 수업도 7~8시간 병행했다. 몇몇 아이들은 북치는 것을 더욱 좋아 하였고 관심 있어 했다. 곡성은 심청 축제로 널리 알려진 만큼 앞으로는 꾸준히 개별적인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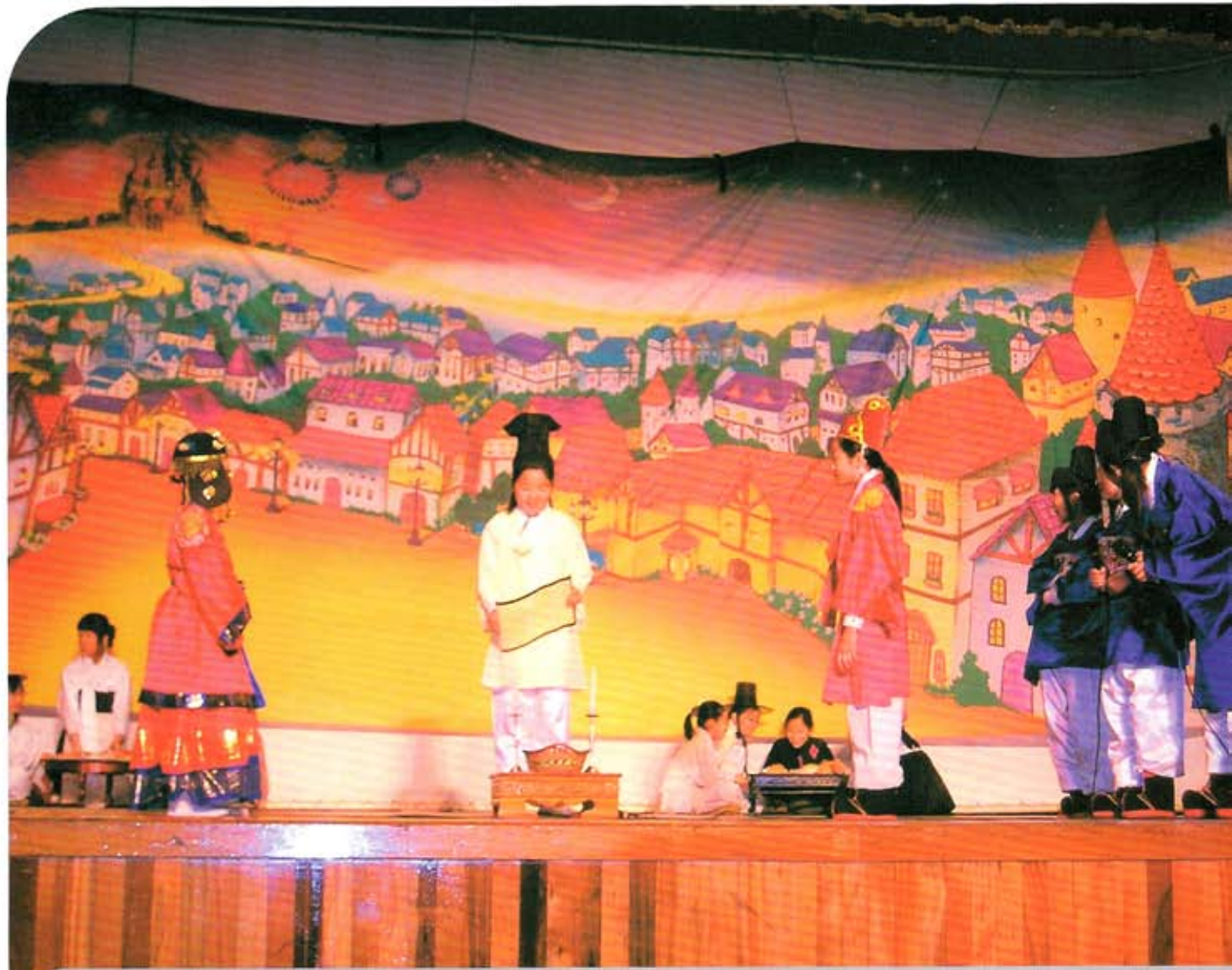
소리 학습을 좀더 심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명고 '김명환'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 아직은 조금 밀려있는 '판소리고법'에 대해 폭 넓은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어쨌든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배운 노래들을 모든 아이들이 거의 다 소화해낼 수 있었고, 전문가처럼 잘은 못해도 흥내는 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작은 목표에는 도달했다고 본다.

교내 학예발표회에서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앞에서 그간 배운 실력을 나름대로 힘껏 뽐낼 수 있었다. 아이들도 열심히 했고 내게도 감명 깊은 시간이었다.

2월 말에는 곡성 군민회관에서 열린 발표회 때는 학년별로 역할을 맡아가며 각기 다른 민요나 전래동요를 부르게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무대에 선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기분 좋은 긴장감을 갖게도 했고 정말 뜻 깊은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오래도록 아이들에게 기억되어질 것이다. 무대에서 뒤로 물러나다 덤블링을 한 친구는 더욱더 잊지 못할 것이고

아마 어른이 되어서도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지기를.....





학교 안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곡성 어린이 연극학교”

1. 교육명 곡성어린이 연극학교

완성도와 성취감 확보

2. 세부내용

- 우리 동요의 아름다운 운율과 가사를 통해 감수성 개발
- 노래부터 말하기, 몸짓까지의 공동창작과정을 통해 사회성 함양
- 공연을 통해 교육과정을 마무리 함으로써 창작과정의

3. 교육개요

- 기간 : 2006월 6월 ~ 2007년 2월
- 장소 : 곡성중앙 초등학교
- 강사 : 김춘수, 문광수



PROGRAM 03 곡성중앙 초등학교

4. 교육사례 요약

- 연극의 교육적 효과와 아울러 공연을 직접 무대에 올림으로써 어린이들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한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벌어지는 연극교육이 직접적인 현장성을 가질 수 있고, 타 학교의 연극교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곡성어린이 연극학교 -강아지 똥”

강사 김춘수, 문광수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보단 무엇을 배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만큼이나, 이번 연극수업을 통하여 나는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지식이나 학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인식시키고 깨달게 하는 것이 교사의 직업적 사명이라고 선부르게 생각하지만, 교사나 아이들이나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을 보면 그러한 것들이 교사의 전부라고는 생각지않는다.

가르치고 배우는 게 전부가 아니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교사로서의 마음가짐이고 그러한 인성교육이 아이들에게 우선 되어져야 할 거라 말하고 싶다.

남원과 그리 멀지 않은 곳 곡성! 그 곳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존재하고 있었다.

연극이란 매개체를 통한 곡성 아이들과 나의 첫 만남이 그것 이었다.

아이들에게 연극이 무엇인가를 알리기보단 단순한 놀이의 일환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생각 할 수 있는 놀이개념 의 연극을 보여주고, 그러한 연극을 통해서 공동체로서의 자신의 존엄성과 창의적 사고를 스스로가 지니기를 간절히 바라며 특별한 만남은 시작되었다.

연극은 함께하는 작업이다. 다시 말해서 공동이 함께 땀 흘리며 격려하고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개인이 아닌 우리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아주 작은 움직임

의 기초이다.

곡성 중앙초등학교 4학년을 중심으로 연극반이 구성되어지고, 아이들의 작은 몸짓 하나 하나 나가 나가에게는 마냥 신난 개구쟁이들로 비추어지기 시작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이 아이들을 보고 한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모두가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곡성 중앙 초등학교 연극반 수업과정은 크게 연극의 이론적면과 인성교육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실시 되어졌다.

1.이론적 수업

- 1) 연극의 개념과 목적.
- 2) 연극의 구성요소
- 3) 대사들 통한 어휘력 향상과 상황 분석

2.인성교육 수업

- 1) 자신감 기르기 및 자기 표출 - 자기소개, 타인과의 인사법 등,
- 2) 상상력을 통한 창의력 신장- 끝말잇기놀이, 사물 표현하기 등.
- 3) 협동심함양과 공동체 의식 갖기 -배역 바꾸어 행동하기, 모듈별 즉흥상황 표현,

3.연극작품 공연수업

연극의 이론수업과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아이들의 선호도와 기량 및 작품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작품을 선정 공연을 위한 수업진행.

- 1) 공연작품선정
- 2) 대본배부

3) 배역캐스팅—공개오디션을 통한 재능 및 기량 확인 후 아이들의 자발적 심사를 유도하여 적극성과 판단력 등을 고취

4)대본 분석 및 인물 분석 - 극의 내용과 흐름을 파악하고 인물들의 성격 등을 분석하여 개인의 분석력을 향상시킨다.

5) 소품 및 의상관련 토의 - 개인 의상, 소품에 대하여 토의하면서 창의력과 자립심을 고취

6) 무대동작선과 디테일 잡기 -무대 위의 동작을 통한 발표력 및 관찰력 향상

7) 작품 공연 올리기

이러한 연극반 교육과정을 통하여 2006년 12월엔 "심청전"을 좀 더 현대적으로 각색하여 공연하였고, 2007년 2월엔 "강아지 똥"이란 작품을 뮤지컬 형태로 무대에 올렸다 모두 열심히 공연에 임하는 자세들을 보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또한 이러한 공연을 통하여 좀 더 쉽게 아이들이 연극을 접하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연극을 통하여 배워왔던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아이들이 성황리에 공연을 마치고 나에게 다가와서, "선생님! 언제 또 해요", 재미있어요! 하며, 외락품안에 안겨들 때 이것이 바로 연극을 통해서 내가 아이들과 갖는 유대감이나 친밀감이상의 사랑이 아닌가 싶었다.

때론 연습이 너무 힘들어 울기도 많이 울고, 작은 것 하나에도 많이 서운한 4학년 모습 그 대로 마음, 추운 겨울 발을 동동 구르며 대사를 외치던 곡성중앙초등학교 연극반, 아니 지 금은 곡성을 대표하는 어린이 연극단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작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힘들어 하던 나의 어깨를 다독겨려주던 아이들, 감사하다며 단체 로 인사를 하고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던 곡성 어린이 연극단

은 곡성 최고의 보물 들이 아닌가 한다. 끝으로 그동안 잘 따라준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선생님들이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말이다. 사랑 한다 아이들 아!

공연작품 : 강아지 똥

공연일시 : 2007, 2, 23(금) 오후 2:00~ 2:30

공연장소 : 곡성 군민회관

출 연 자 : 이혜린, 정지원, 정수원, 김혜민, 주수빈, 문선주, 윤소영, 최지영, 조가애, 이승현, 조화진, 최영진,

작품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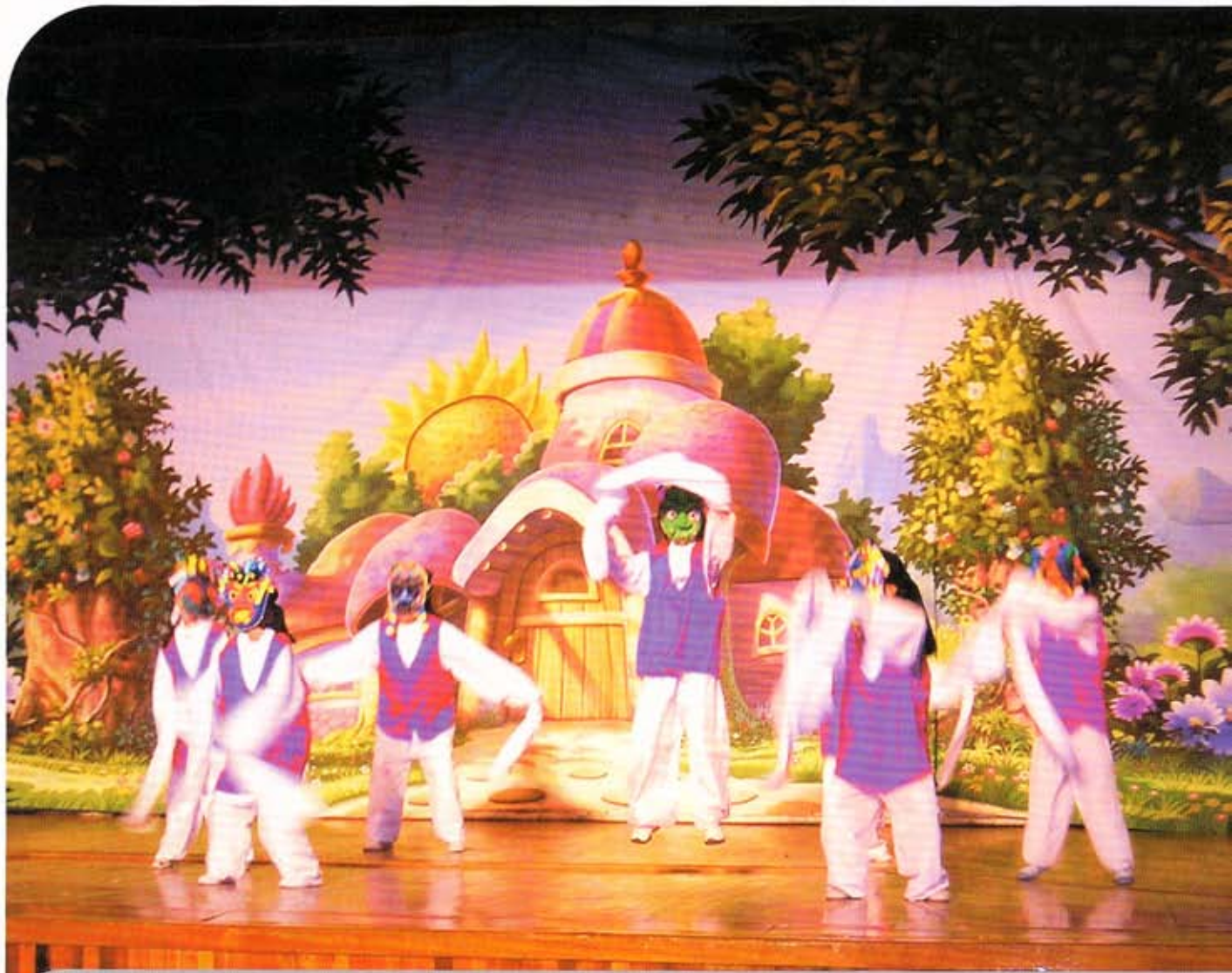
어느 날 골목길 담 밑 구석자리에 강아지 한 마리가 똥을 누고 갑니다.

처음 세상 구경을 하게 된 강아지 똥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와 길가에 떨어진 흙덩이를 만난 강아지 똥은 자신이 더럽고 쓸모없는 똥이란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런 모습에 비웃음을 당하지만 결국 하느님은 이 세상에 하나도 쓸모없는 것은 만들지 않았다는 흙덩이의 말을 듣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알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병아리를 이끄는 어미닭을 만난 강아지 똥은 또다시 조롱을 당하고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며 자화하고 있을 때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를 만나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강아지 똥 이라며 자신의 거름이 되어주길 바라고, 이내 강아지 똥은 자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거름에 쓰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학교 안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얼썩! 탈춤을 추자”

1. 교육명 : 얼썩! 탈춤을 추자

각상으로 표현

2. 세부내용

- 연극 놀이 : 김밥말이 · 비빔밥 놀이 · 맘껏 소리지르기
- 내 친구는요! : 친구 얼굴 그리기, 인터뷰하기 (친구 속 속들이 알기)
- 조각상 만들기 : 2인1조 관절의 점, 맞대기 · 사물을 조

3. 교육개요

- 기간 : 2006년 4월 ~ 12월
- 장소 : 죽곡초등학교
- 강사 : 김현경, 정이형



말놀이반은 우리나라의 전통 탈춤을 이해하고 전통 탈을 직접 만들어 보고 탈춤을 배우며 연의 양식을 직접 체험하는 반이다. 죽곡초등학교는 곡성 석곡에서도 거의 끝에 위치하여 전교생이 96명 정도이지만 아이들 얼굴에서 순수함과 해맑음이 보이는 학교이다.

2006년 3월 처음 아이들을 만나 탈춤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아이들에게 탈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수업을 시작했고 1학기 동안은 연극놀이와 전통놀이를 통해 마음의 벽을 깨고 협동심을 기르고 친밀함을 높이면서 자기의 탈을 만들어 탈에 자신의 마음과 내면의 모습을 표현하고 봉산탈춤이라는 우리의 전통탈춤을 배워 나갔다. 탈춤 장단을 가르치기 위해 다른 선생님들과 민요를 배워나갔고 또한 불림을 하면서 목소리도 키우고 자신감을 갖추어 나갔다.

2학기 때는 계속해서 봉산탈춤 기본 무를 배워 나갔고 자기만의 탈을 쓰고 춤을 추고 천천히 자세 교정을 하였다.

아이들이 저학년과 고학년이 섞여 있다보니 배우는 속도와 이해하는 수준이 틀리니 두 때로 나누어 저학년은 조금 쉬우면서 친의 변화를 많이 주는 것으로 바꿔서 가르쳤고 고학년은 친의 변화는 별로 없지만 약간의 어려운 동작을 익혔다.

12월 동학제 '학교문화예술교육발표회'에 우리 신나는 말놀이반이 탈춤으로 공연을 가지게 되었고 연습할 땐 어수선하고 떠들기 산수였던 아이들이 아찌나 진지하고 질렸는지 너무 대단스러웠다.

아이들의 변화는 모습들을 지켜보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참으로 유익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다.

글 김현경, 정이형

PROGRAM 04 죽곡초등학교

4. 교육사례 요약

- 농촌지역 문화소외 청소년들에게 전통연희 양식의 마당극을 통해서 창의성과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시킨다.
- 마당극을 직접 제작, 공연함으로써 경쟁우주의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개성을 발현시켜 사회성을 기르는 교육의 기회로 삼는다.
- 다양한 전통연희 양식을 결합시켜 서구화 되어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인식시킨다.



학교 앞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초등학교 미디어교육프로젝트(곡성 어린이 방송국)

“방송국! 우리가 만들어요~”

1. 교육명 : 방송국! 우리가 만들어요

2. 세부내용

- 정보의 수집, 분류, 정리 등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배양
- 전문가 중심의 제작 교육
- 교양 및 예능 프로그램 녹화 방영을 통한 애교심 고취

3. 교육개요

- 기간 : 2006년 3월~12월
- 장소 : 석곡초등학교
- 강사 : 임용철, 이소연, 이아삭



PROGRAM 05 석곡초등학교

4. 교육사례 요약

- 본 프로그램은 미디어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미디어환경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비판적이고 능동적인 미디어 수용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학습활동은 동료 학생들과 협력을 통해 창의적이며,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활동을 하며, 모둠중심의 제작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캠코더에 내 꿈을 담아 보자!!!

강사 임용철



곡성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지만, 농촌의 인구가 급감하면서 적은 학생 수와 열악한 교육시설로 인해 인근의 학교를 통폐합하는 적정규모학교육성시범사업으로 현대식 시설을 갖춘 학교 중 하나가 석곡초등학교이다. 석곡초등학교는 석곡면과 인근의 목사동면에서 다니는 어린이들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두 학급씩 24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다.

이중 5~6학년 학생들 20여명으로 <석곡어린이방송국>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진행하였다.

<석곡어린이방송국>은 기존의 학교 방송반 친구들과 방송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과 세 명의 강사들로 구성되어, 매주 월요일 두 시간씩 진행하였다. 간단한 게임으로 시작한 첫 수업에서 서로 시켜달라는 모습부터 12월 마지막 코를 훌쩍거리며 녹화를 할 때까지 순수하고 장난꾸러기인 모습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석곡어린이방송국>프로그램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TV방송매체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함께, 본인들

이 직접 제작해 봄으로써 창조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함께하는 팀원들 간의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방송제작과정에서 학교의 이곳저곳을 영상에 표현함으로써 애교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고, 뮤직비디오나 드라마 제작과정을 통해 본인들도 모르고 있었던 내면의 끼와 꿈을 맘껏 발산 시킬 수 있게 하였다.

1학기에는 미디어에 대한 개념정리와 TV방송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을 공부하였고 직접 방송국 견학을 통해 방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기존의 학교방송실이 있었지만 아침에 간단한 뉴스를 읽는 정도의 방송반을 운영하고 있었고 촬영기술이라든가 기사 작성하는 요령도 거의 훈련되지 않았다. 이에 수업시간을 통해 카메라 작동법과 찍는 요령 등을 가르쳐 주면서 더 이상 캠퍼더가 함부로 손대면 안되는 비싼 가전제품이 아니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처음 캠퍼더를 이리저리 막 휘두르며 촬영하던 애들이 수업을 통해 나름대로 안정된 영상을 만들어내고 본인들이 직접 출연하고 진지하게 연기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2학기 들어서는 3조로 나뉘어 각 조별로 광고한편과 작품을 만들도록 하였다. 조별선생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1조는 '해가족' 문제를 다룬 드라마를, 2조는 그룹 거북이의 '비행기'를 아이들이 새롭게 만드는 뮤직비디오로 마지막 3조는 학교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하고 각각 촬영

에 들어갔다. 각조별로 촬영, 연출, 연기 등 각자 임무를 맡아 난생처음 만들어 보는 작품에 열심히 하였다.

12월에 우리가 견학했던 방송국의 녹화처럼 MC와 리포터도 정하고 조명도 밝게 하고 세트도 꾸미고 3대의 카메라를 배치하여 녹화를 마쳤는데 제작과정에서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했던 아이들도 조금 더 잘할 걸 하며 아쉬워하기도 하였다.

1,2학기 아이들과 함께 보내면서 수업 중에 떠들고 말 안 듣는 아이들 때문에 때론 화도 내고 속상해하기도 했지만, 큐 사인이 들어가면 진지해지고 까불거릴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무한한 잠재력과 끼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걸 알려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북돋워 주지 못해 아쉬웠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적으로 접근하기가 힘든 시골 학교지만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몰랐던 것을 알아가고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학교 안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북춤”

1. 교육명 북춤

2. 세부내용

- 북춤을 통하여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 발전
- 전통적인 리듬을 체험하며 전통 음악 언어를 익힌다
- 우리 것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알리도록 한다.

3. 교육개요

- 기간 : 2006년 4월~12월
- 장소 : 석곡초등학교
- 강사 : 김희숙



PROGRAM 06 석곡초등학교

4. 교육사례 요약

-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주적이고 도덕적인 인재를 양성하며, 학생 및 학부모의 희망에 의한 취미, 소질, 특기 교육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능력을 신장하고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하여 교육의 극대화를 꾀하고자 한다.
- 북춤 가락을 익혀 표현 및 감상의 기초 기능을 길러 창조성과 음악성을 계발한다.
- 북춤 가락을 통하여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하려는 마음을 가지며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가진다.

북춤부

강사 김희숙

국제화 · 세계화와 더불어 급격한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우리의 전통 문화는 차츰 사라져가고 잊혀지고 있다. 국악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음악이다. 오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고 이어 내려온 우리의 얼과 고유의 문화유산으로서 북은 승리 또는 시작 그리고 전진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해온 고유의 우리 악기이다.

특히 진도 북춤은 농경 사회에서 일꾼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춘 춤으로 진도 지방이 그 발상지이다. 삼현육각 및 시나위 가락과 사물이 받쳐주는 형태가 음악적 구성면에서도 차이가 나므로 즉흥적 춤사위와 북 가락이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면서 무한히 발전 할 수 있는 북 놀이다. 양손에 북채를 쥐고 장구처럼 치기 때문에 잔가락이 많으며 뭉춤과 이어짐이 민첩하고 가락이 다양하다. 특히 북이 갖는 시간적 소리와 즉흥적 춤사위가 갖는 공간적 움직임 어우러져 흥을 북돋는다. 원래 두레 곳에서 농악으로 발전되고 다시 춤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진도 지방에서만 양손에 북채를 들고 가락 위주로 연주하는데 우리의 북춤은 고전무용을 가미하여 가락의 흥겨움과 춤의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다.

북춤은 북소리의 강렬함과 장구의 다양하고 유연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남성적이면서 여성적인 멋을 한껏 발휘 할 수 있는 춤으로 다양함과 구성진 춤 사이로 단순한 가락에서 점차 빨라지며 신명과 신바람을 일으켜 보는 이 모두를 완전한 집단적 예

술 체험으로 이끌어 나가며 또한 북춤은 인간의 내부에서 우리나는 예술적 감흥을 담뽕 지니게 되고 흥겨우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 누구나 일어나 춤추고 싶다는 욕망을 일으키게 하는데 북춤의 예술적 원초 성이 있다. 북춤은 느린 굿거리에서 무겁게 춤을 추며 감정을 은은하게 나타내는 내면적인 춤사위를 구사하는가 하면 때론 투박스럽게 뛰어나며 힘차게 북을 울려 생동감을 주고 자연스러우면서도 단순한 춤사위를 연출하기도하여 예술미의 다양함을 맛볼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성을 가진 분야(악기)이기도 하지만, 리듬악기이면서도 다루는데 남다른 특기를 가져야 하는 어려움도 가진 분야이다.

이에 방과후 동아리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의 전통 민속문화예술을 접하는 기회를 넓혀 지역 문화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알려주는 동시에 이를 탐구하고 표현하며 계승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이다. 그리고 아동 및 학부모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인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유도하여 함께 어울리는 개인 및 집단놀이 활동을 통해 북, 장구, 징, 팽과리의 장단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며 익히되, 장단 표현의 기본 원리인 호흡법을 통한 장단 익히기와 긴장, 이완의 원리, 음양의 조화 원리를 적용하여 아동들이 북 연주의 기능을 신장하며 잠재적인 창의성이 계발되는 장이 되도록 하

었다. 요즘 정보화 사회에 익숙한 아이들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쉽게 해결하는 습관에 길 들여졌는데 북춤을 배우면서 손가락에 물집이 여러 번 잡혀 아리고 시리며, 다양한 연주기법과 춤사위를 익히는 것이 어려워 끈기 있는 인내심을 기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학업에 지쳐있는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으며, 전통민속문화예술을 접하게 하여 아동들의 문화 예술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체험활동과 다양한 표현활동을 신장시켰다.

뿐만 아니라 대중화되어 있는 우리 가락을 익히는 기능 신장의 면에서 볼 때 학부모 및 사회인과의 다양한 축제 및 발표회에서의 접촉은 방과후 교육에 대한 신뢰감 및 대화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도 큰 의미이다.

다양한 문화예술적 체험은 아동의 감수성과 호기심 계발만이 아니라 삶에 있어 창조적인 리듬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우리 가락을 북으로 아동들에게 우리 전통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재확인시켜, 민족의 우수성과 자긍심을 길러 주체의식을 심어 주며, 조상들의 얼을 이어 받아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일원이 될 것이라 믿는다.





학교 안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꿈을 키우는 글쓰기”

1. 교육명 : 꿈을 키우는 글쓰기

2. 세부내용

- 자기 및 친한 친구를 소개함으로써 생각을 열고 상상력을 바탕으로 나만의 동화를 쓸 수 있음

3. 교육개요

- 기간 : 2006년 10월~2007년 2월
- 장소 : 석곡아동복지센터
- 강사 : 고동실



석곡면은 방학이 되면 들로 산으로 인위적으로 조성된 자연학습원을 찾아 나서지 않더라도 어디나 자연 친화감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사교육의 관심도가 높은 우리나라 교육적 현실로 보면 열악하기 그지없는 지역이기도 하다. 번듯한 학원하나 없는 것이 마음 아프다. 물론 사교육 열풍에 너도나도 휘말릴 필요는 없다손 치더라도 지역의 교육적 열기는 그 어느 곳 못지않기 때문에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 입장에서선 불안할 뿐이다. 우리 어린이들의 꿈을 키우고 기초적인 글쓰기 학습은 석곡면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꿈을 키우는 글쓰기' 강좌를 열자 농촌의 먼단위 학생들은 학원시설이 부족한 탓인지 공부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어린이들의 꿈은 소박한 택시기사에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자신의 꿈을 키우고 가꿔나가는 공부는 평생에 걸쳐 이룩해야 할 것인지도 모른다. 첫 수업부터 뜨겁던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르듯 어린이들의 화기에אה한 수업이 이뤄진다.

자신의 꿈을 발견하는 일은 쉬운듯하면서도 사실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꿈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글쓰기수업의 바탕수업으로써 마음 열기는 상당히 중요하다. 평생에 자신이 진심으로 바라던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마음열기의 작업이 펼쳐진다. 어린이들은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5분 이상 생각하진 못하는 것 같다. 쉽게 말하자면 깊이 생각하는데 한계가 있다. 마음열기수업은 굳게 닫혀진 마음의 문을 활짝 연게 만드는 게 관건이다. 따라서 딱딱한 형식에 구애된 글을 쓰기보다는 그림이나 간단한 기호로 생각을 표현

하게 한다. 자신의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유도한다. 밝은 면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어두운 현실이나 불만도 적극 수용하는 태도로 접근하다보면 어린이들의 고민거리들을 하나둘 풀어놓기 시작한다. 일단 이렇게 해서 마음열기가 시작되면 어린이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마음상태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정해진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어린이들의 표현욕구는 그칠 줄을 모른다.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상상하며 글을 쓰고 표현하는 것만큼 신나는 일은 없다. 어린이들은 이제 글쓰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한다. 어린이들의 내면에 잠재된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기만 하면 된다. 강사로서 나는 어린이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어린이들 한 명 한 명을 관찰하다보면 저마다 독특한 개성을 발견하게 된다. 어른의 잣대로 감히 어린이들의 무궁한 상상력에 토를 달진 못한다. 다만 놀랄 뿐이다.

강사 **고동실**

PROGRAM 07 석곡아동복지센터

4. 교육사례 요약

- 특수교과학습의 기회가 적은 유치원생들에게 창의적 글쓰기 활동의 기회 부여
- 농촌환경에서 밝게 키워온 꿈들을 그림이나 기호로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잠재된 자신들의 미래꿈을 발견해 보는 창의성 교육 실현
- 어린이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흥미와 깊이가 있는 내용의 글로 표현하는 글쓰기 능력 함양



학교 안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내 고향 곡성 청소년 VJ육성 미디어 교육

“곡성 청소년 VJ특공대”

1. 교육명 : 곡성 청소년 VJ특공대

산자의 역할을 점검

2. 세부내용

- 분석능력- 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 생산과정 체험- 다양한 미디어의 생산과정을 체험
- 생산자 역할 점검- 스스로 창의적, 능동적인 미디어 생

3. 교육개요

- 기간 : 2006년 5월~10월
- 장소 : 옥과중학교
- 강사 : 이정훈, 김민선, 김가연



PROGRAM 08 옥과중학생

4. 교육사례 요약

-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언론 수용자의 위치에 있는 청소년들의 능동적 참여 유발
- 문화적으로 소외된 곡성지역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문화체험과 창작활동 기회부여
- 청소년 VJ교육을 통해 비디오저널리스트에 관심 있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직업 선택에 기회 제공
- 전문 청소년 비디오저널리스트를 양성하여 청소년시청자의 주권향상 기여

옥과중학교 “곡성청소녀 VJ특공대” 캠코더로 만드는 즐거운 상상!

강사 이정훈

2006년 전남곡성의 옥과 중학교 1, 2, 3학년들로 구성된 15명의 학생들과 3명의 선생님들이 영상제작 수업을 통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게 되었을까?

“첫 만남의 설레임”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 한마디와 행동을 스피치처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단순한 영상제작수업이 아닌 교육철학을 갖고 아이들의 표현 능력과 자유로운 상상력을 솔직하게 그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한 바람이 쉽진 않았다. 이전에 이와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성남 문원중학교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한 적이 있었지만 그 아이들과 여러 가

지 면에서 다른 점이 있었다.

아이들이 때 묻지 않고 순수한 점은 같았으나 카메라 앞에서의 적극성 그리고 자기를 표현하는데 있어 자신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어른들의 시각 속에 자신들의 모습을 보려 하였다.

예를 들면 기획단계에서 학교에 대한 두발규정, 매점, 이성교제 문제 등 불만이 많았는데 직접 촬영에 들어가면 우리 학교의 좋은 점은? 이성교제는 안된다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비켜 가고 자기 겁얼을 하며 착한 아이 콤플렉스 같은 경향이 강했다.

그래서 도시와는 다르게 지방의 학생들은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보며 제작수업보다 먼저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수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1주일에 1번 뿐인 학생들과의 만남, 학교 선생님이 아닌 문화예술교육강사로의 위치, 학교와의 관계, 편집 장비 등 풀어야 할 문제도 많았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1주일에 한번의 만남으로 아이들과 소통을 한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그러한 만남은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친구가 되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서로에 대한 언어와 표현 방식을 이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매우 즐거웠다.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망울을 떠올리면 가슴이 떨렸고 그 시간이 새로웠다.

한편 카메라에 담겨져 온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알 수 있었다.

“낙화” 뮤직비디오 작품에서는 친구와의 우정이 성적으로 인해 변질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 속에서는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했다고 본다.

또 하나의 작품은 “동상이몽”, “이상동몽” 이었는데 EBS 교육을 둘러싼 학생들과 선생님의 각기 다른 생각, 한편으로는 나이 차별로 인해 느끼는 감정은 같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같은 공간속에 서로가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들로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생각하게끔 하였으며 선생님과의 제자간의 이해의 폭을 넓혔다고 생각한다.

영상의 힘이란 가장 직접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시선을 이야기 하며 소통할 수 있는 도구이다. 그 제작의 과정이 쉽지 않고 기획단계부터 무엇을 이야기 할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과연 생각한 그대로 표현이 되었는가? 의 고민이 따르기에 말하는 메세지는 그리 가볍지 않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명이 담는 카메라의 시선은 갖기 다른 것이다. 획일주의를 강요하는 사회속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아이들이 깨달았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수업이 단순히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관심과 배려속에서 꾸준히 이어져 갔으면 하는 것이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도구로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친구와의 우정이 성적으로 인해 변질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이다.



친구와의 우정이 성적으로 인해 변질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이다.



친구와의 우정이 성적으로 인해 변질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이다.



친구와의 우정이 성적으로 인해 변질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이다.



친구와의 우정이 성적으로 인해 변질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이다.



친구와의 우정이 성적으로 인해 변질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이다.



친구와의 우정이 성적으로 인해 변질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이다.



친구와의 우정이 성적으로 인해 변질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이다.



학교 안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신나는 마당극”

1. 교육명 신나는 마당극

2. 세부항목

-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통한 민족문화창달에 이바지
- 전통연희양식인 마당극의 발전 및 연구개발.
- 작품 창작을 통한 마당극의 공연 활성화.
-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문화적 감성함양.

3. 교육개요

- 기간 : 2006년 3월 ~ 11월
- 장소 : 석곡중학교
- 강사 : 김호준, 조성훈

곡성군 석곡면에 위치한 석곡중학교와 2006년 4월 첫 수업을 시작으로 연을 달게 되었다.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우리 전통 연극인 마당극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전통연희를 이용한 마당극을 통해서 창의성과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나와 너가 아닌 우리가 되어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학기동안은 마당극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풍물장단에 대해 사물별 모듬을 나누어 인사굿, 일채, 휘모리, 삼채, 진오방진, 굿거리 등 기본 장단을 신나게 두드리고, 장단에 따른 민요(굿거리장단-사랑가, 산토끼비 등)를 목청껏 불러보고, 연극놀이를 통해 자유롭게 놀아보는 등 두드리기, 불러보기, 놀아보기의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2학기엔 교내 축제와 담양군 종합발표회 참가로 공연 위주의 발음발성훈련, 신체훈련, 탈춤기분부등 본격적인 마당극 수업이 진행되었다. 탈춤을 추기 앞서 종이 탈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는데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탈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아이들이 모습을 보며 호뭇해하며 우리문화에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봉산탈춤 기본무인 만사위, 고개잡이, 다리들기, 향소 길음 등을 배웠는데 탈춤이 주는 체력적인 에너지 소모로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으나 차츰차츰 익숙해져 가고 자연스러운 모습의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좋은게 우리 것 이제~” 우리문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값진 시간이다.

비록 주어진 시간이 적다보니 마당극으로의 완성된 작품을 내오기가 다소 어려움은 있었으나 개인, 민화 등등 혼자 놀기의 진수인 서양식 문화가 팽배해지면서 개인화에 빠지기 쉬운 요즘 아이들에게 학교에서나마 우리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심어 주었던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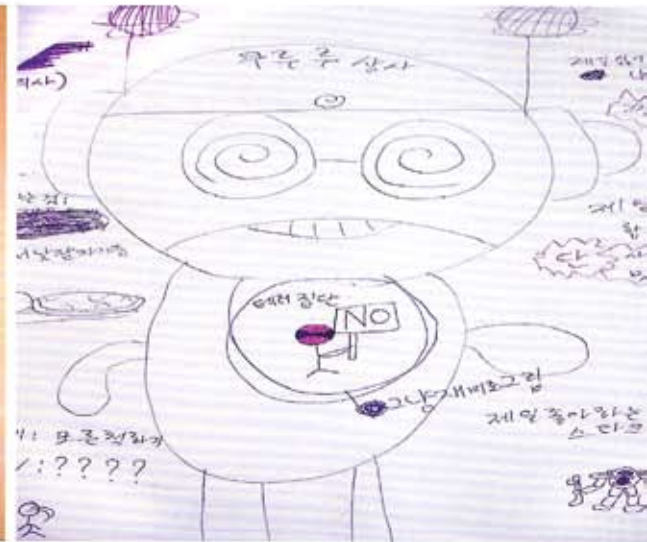
앞으로도 어린시절 보았던 인극 한편이 인생의 지킴이 되듯이 학생들에게 우리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정서 함양을 메가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

강사 김호준, 조성훈

PROGRAM 09 석곡중학교

4. 교육사례 요약

- 농촌지역 문화소의 청소년들에게 전통연희 양식의 마당극을 통해서 창의성과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시킨다.
- 마당극을 직접 제작, 공연함으로써 경쟁위주의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개성을 발현시켜 사회성을 기르는 교육의 기회로 삼는다.
- 다양한 전통연희 양식을 결합시켜 서구화 되어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인식시킨다.



학교 안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만화·애니메이션과 함께!”

1. 교육명 만화·애니메이션과 함께

- 애니메이션 강의, 만화 강의
- 창의적 재량수업(이론 및 토론 20%, 감상 40%, 실기 40%의 비율로 구성)
- 특기 적성수업(이론 및 토론 20%, 감상 30%, 실기 50%의 비율로 구성)

3. 교육개요

- 장소 : 곡성중학교
- 강사 : 노수아, 홍응표

곡성중학교 1~2학년을 중심으로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학생들 30여명을 모아서 만든 반이다. 대부분 감상을 좋아하는 학생들이었다. 처음 수업의 초롱 초롱한 눈동자가 잊어지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방법 말고 또 하나의 방법인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라는 마음 기점으로 첫 만남을 가졌다. 다른 학교에 비교해서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곡성중학교에서는 더 이상 특이한 수업도 아니었고 또 하나의 수업이라는 부담감을 갖고 학생들은 앉아있었다. 그리고 그저 감상하는 수업을 간절히 원했었다. 이런 생각부터 바뀌어야 했다. 보는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만드는 즐거움이 배나 더 크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가지고 임했던 학생들이 자신의 상상력을 자신의 손을 이용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이 큰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들 자신의 끼를 보여주었다.

기본적으로 제8예술로 분류된 새로운 문화장르인 만화, 애니메이션의 기본적인 제작원리 및 여러 제작방법을 소개하고,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만화, 애니메이션이라는 예술장르에 대한 이해의 폭을 증대시키며 관심을 유발시켰다. 특히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에서 공동작업이 많이 요구되는 수업이므로 학생들 간에 협동심을 배웠으면 인내심 또한 많이 배웠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서로간의 갈등도 있었지만 자신들의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성취감으로 서로간의 갈등도 풀어나갔다. 그러한 성과로 "광주청소년 10분 영상제"에서 정려상이라는 좋은 성과도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운 유럽의 예술애니메이션과 모래, 오브제, 클레이 등 여러 종류의 비상업 애니메이션 등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책을 읽는 올바른 습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면서 만화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다.

우선 만화는 책을 아이들에게 가깝게 해주는 좋은 역할 때문에 책을 손에 잡는 능력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 시키는 좋은 도구도 된다는 것을 이번 수업을 통해 많이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30여명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과 끼로 만든 애니메이션은 내 머릿속에서도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것 같다.

강사 노수아

PROGRAM 10 곡성중학교

4. 교육사례 요약

- 새로운 문화장르로 분류되는 만화, 애니메이션의 기본적인 제작원리 및 여러 제작방법을 소개하고,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장르에 대한 이해의 폭을 증대시키며 관심을 유발시키는데 있다. (이론)
- 만화, 애니메이션장르의 특성인 아이디어와 공동작업이 요구되는 실기수업을 통하여, 수혜학생들의 창의성과 협동심을 개발시키는데 있다. (실기)
-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운 유럽의 예술애니메이션과 모래, 오브제, 클레이 등 여러종류의 비상업 애니메이션등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감상)



학교 안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식물의 성장, 마음의 성장”

1. 교육명 “식물의 성장 마음의 성장”

1. 세부내용

- 아동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 작품완성 과정을 통한 자연관찰 및 원예테라피
- 녹색식물을 통한 손놀림으로 신체 및 학습능력 향상
- 단체활동을 통한 협동심과 집중력 증대

2. 교육개요

- 기간 : 2006년 12월 ~ 2007년 2월
- 장소 : 관내 유치원 3곳
(옥과병설유치원, 입면병설유치원, 한마음어린이집)



■ 프로그램

| 회차 | 프로그램명 | 내용 |
|----|------------|-------------------------|
| 1 | 테라리움 | 투명한 용기내 식물을 꾸미고 가꾸어 본다. |
| 2 | 숯부작 | 신비로운 숯의 활용법, 효능 |
| 3 | 토피어리 | 이끼의 사용법, 식물관리법 |
| 4 | 향기치료 | 꽃향기 이용한 포푸리 |
| 5 | 자연소재 놀이감 | 농작물로 거북이 만들기 |
| 6 | 자연을 담은 인형 | 꿀풀로 풀각시 인형 만들기 |
| 7 | 수경재배 | 식물뿌리의 상태와 성장모습 관찰 |
| 8 | 다쉬가든 | 관엽식물을 이용한 정원 |
| 9 | 꽃장식 | 생화를 이용한 꽃꽂이 실습 |
| 10 | 점핑클레이 | 소근육 발달 |
| 11 | 크란츠 만들기 | 조화장식 |
| 12 | 나만의 액자 꾸미기 | 자연물을 이용한 액자 꾸미기 |
| 13 | 새싹채소 기르기 | 영양가득한 신선한 새싹 채소 키우기 |
| 14 | 석부작 | 현무암 위에 식물재배하기 |
| 15 | 몽송아물들이기 | 시각적 효과 느끼기 |
| 16 | 화전 만들기 | 꽃잎 이용한 후각적 화전 꾸미기 |
| 17 | 실내정원 | 녹색식물을 이용한 작은 정원 만들기 |
| 18 | 꽃 포장 | 생화 이용한 포장법 익히기 |
| 19 | 아로마 테라피 | 향기요법 |
| 20 | 코사지 만들기 |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코사지 만들기 |

PROGRAM 11 유치원생

3. 교육사례 요약

- 마음으로 대화하는 다양한 원예활동을 통하여 자아성찰의 기회를 갖고 식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음을 알게된다.
- 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원예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 혹은 신체적 적응력을 기르고 이로 말미암아 육체적 재활과 정신적 회복을 추구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하면서 식물 및 원예활동을 매체로 한 전문적인 기술과 방법을 통하여 심신의 치료와 재활, 그리고 녹색의 쾌적성 및 환경회복을 얻고자 한다.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곡성종합체험학습장 프로그램

“전통미감의 이해”

1. 교육명 전통미감의 이해

2. 세부내용

• 전통음악(가야금 혹은 사물놀이 등), 다도, 전통염색 등

2. 교육개요

• 기간 : 2006년 3월 ~ 11월

• 장소 : 곡성종합체험학습장



孝의 고장 곡성으로 전통문화예절 배우러 오세요

문화관광부가 후원하고 곡성문화원, 곡성교육청이 주최하는 곡성체험학습장에서는 오늘도 곡성군 1학년 초등학생들이 우리의 전통문화예절을 배우며 장단 익히기에 여념이 없었다.

연간 특기적성 교육과 함께 전통문화예절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곡성체험학습장은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와 예절, 전통 악기를 가르치며 우리 문화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오늘은 곡성군 중앙초등학교 1학년 1, 2, 3, 4반 전체 학생들이 이곳 학습장에 모여 전통문화예절교육을 받았다.

예절교실에서는 실생활에 필요한 절 예절에 대해 학습하고 일상생활 동안 어른에게 인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또한, 명절에 행하여지는 근절과 형식, 방법 등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어 아이들에게 매우 유용한 시간들로 진행되었다.

국악교실 시간에는 국악에서 널리 쓰이는 장단 익히기를 가르쳤는데 구수한 전통 가락의 장단에 흥이 절로 났고 따라하는 아이들 또한 함박웃음을 지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오늘 수업에 참가한 곡성중앙초등학교 1학년 전향숙선생은 '국악수업을 통해 구음익히기, 장단치기 등 우리 전통음악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우리 음악의 좋은 점을 다시 한번 인지했으며 아이들의 처음 접하는 자세가 너무도 진지하고 열의가 있었다'며 '아이들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다른 악기도 접해보고 싶었는데' 하며 아쉬운 여운을 남겼다.

문화시대 기사 中

PROGRAM 12 초·중학생

3. 교육사례 요약

- 우리 문화, 우리 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전통적인 미의식을 함양한다.
- 어른들이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자라는 아이들에게도 우리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교육하고 또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전통미감의 이해 (곡성체험학습장)

1. 교육프로그램개요

우리 조상들의 삶이 투영되어 전해 내려오는 전통문화와 예술 등을 곡성체험학습장에서 각 분야의 체험을 통해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

| 영역 | 프로그램명 | 세부내용 |
|------------|--------------|--|
| 전통 생활문화 | 전통미감 의 이해 | -곡성종합체험학습장과 연계하여 전통음악, 다도, 천연염색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고유 민속 문화인 관/혼/상/제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운영 -정규교과과정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 이외의 곡성 관내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문화 인프라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함 |

1) 교육목적

- 곡성의 초, 중, 고등학생들의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원, 교육청, 학교 삼위일체의 공동 프로그램의 운영
 - ▷ 곡성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곡성 종합체험학습장을 곡성문화원과 협력 하여 곡성종합체험학습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음악, 전통예절, 다도, 천연염색 등의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여 학생들이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이해하면서 미래문화를 선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

2) 교육목표

- 지리산권내의 대표적 문화소외지역 학생들의 문화예술 정서 함양과 기본 문화 예술적 재능의 축적 계기 마련
- 이론적인 학습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교육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바른 이해
 - ▷ 우리 조상들이 지켜오고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우리 문화, 또한 애써 눈여겨보지 않았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통해 그 속에 담긴 전통적인 미의식을 이해한다.

3) 활용장르

- 생활 문화 ■ 전통 문화 ■ 문화 예술 ■ 예절 문화

| | |
|-------|---|
| 문화 예술 | 생활문화 (옛날의 의식주 / 자연관찰 / 향토관) |
| 교육 영역 | 전통문화 (다도 / 민속체험 / 국악) 문화예술 (목공예 / 임석원 / 천연염색 / 수상식물 / 야생화) 예절문화 (관례 / 혼례 / 상례 / 제례) |

4) 월별 교육대상 및 인원수

| 월 | 학 교 명 | 참여학생 수 |
|----|---|--------|
| 4 | 옥과초(6년), 중앙초(3년), 죽곡초(3, 4년), 고달초(3, 4년), 석곡중(1, 2, 3년), 특수학교(유, 초, 중, 고) | 432명 |
| 5 | 옥과초(1, 3년), 중앙초(2년), 입면초(5년), 죽곡초(5, 6년), 고달초(5, 6년), 오산초(3, 4년) | 368명 |
| 6 | 죽곡초(1, 2년), 고달초(1, 2년), 입면초(1년), 옥과초(4년), 석곡초(5년), 중앙초(1년) | 323명 |
| 7 | 석곡초(3년), 입면초(2년) | 84명 |
| 9 | 심기초(1~6년), 옥과초(2년), 중앙초(4년), 석곡초(4년), 입면초(4, 6년), 곡성중(1년) | 618명 |
| 10 | 중앙초(5년), 입면초(3년) | 202명 |
| 11 | 중앙초(6년), 오산초(5, 6년) | 151명 |

5) 2006 곡성체험 학습장 체험 1일 일정표

| 월일(요일) | 학 교 명 | 체험학습장 활용계획 | | 과 목 | 비 고 |
|----------|---|---------------|-----|----------------|-----|
| | | 학 년 | 학생수 | | |
| 4/ 4(화) | 옥과초 | 6 | 69 | 염색, 예절, 다도 | |
| 4/ 5(수) | 중앙초 | 3 | 128 | 국악, 예절, 다도 | |
| 4/ 12(수) | 죽곡초 | 3, 4 | 20 | 염색, 다도 | |
| 4/ 12(수) | 고달초 | 3, 4 | 15 | 염색, 다도 | |
| 4/ 19(목) | 석곡중 | 1, 2, 3 | 130 | 국악, 염색 | |
| 4/ 20(목) | 옥과초병설유, 곡성유치원 죽곡초병설유, 입면초병설유, 석곡초병설유, 옥과초, 중앙초, 죽곡초, 입면초, 석곡초, 옥과중, 곡성중, 석곡중, 곡성고, 조리과학고, 옥과고 | 특수학생 | 70 | 국악, 예절 | |
| 5/ 10(수) | 옥과초 | 1 | 69 | 국악, 예절 | |
| 5/ 11(목) | 중앙초 | 2 | 123 | 국악, 예절, 향토관 | |
| 5/12(금) | 입면초 | 5 | 40 | 예절, 염색 | |
| 5/17(수) | 죽곡초 | 5, 6 | 30 | 국악, 염색, 다도, 예절 | |
| 5/17(수) | 고달초 | 5, 6 | 15 | 국악, 염색, 목공예 | |

| 월일(요일) | 학 교 명 | 체험학습장 활용계획 | | 과 목 | 비 고 |
|----------|-------|---------------|-----|-------------------------|-----|
| | | 학 년 | 학생수 | | |
| 5/19(금) | 옥과초 | 3 | 77 | 국악, 염색, 예절 | |
| 5/25(목) | 오산초 | 3,4 | 14 | 예절 | |
| 6/12(월) | 죽곡초 | 1,2 | 25 | 국악, 다도, 염색, 예절 | |
| 6/12(월) | 고달초 | 1,2 | 10 | 수상식물, 야생화, 임석원, 민속체험 | |
| 6/20(화) | 입면초 | 1 | 62 | 국악, 예절 | |
| 6/22(목) | 옥과초 | 4 | 69 | 염색 | |
| 6/26(월) | 석곡초 | 5 | 37 | 야생화, 민속체험 | |
| 6/28(수) | 중앙초 | 1 | 120 | 국악, 예절, 향토관 | |
| 7/ 5(수) | 옥과초 | 6 | 69 | 염색, 예절, 다도 | |
| 7/ 6(목) | 중앙초 | 3 | 128 | 국악, 예절, 다도 | |
| 7/11(화) | 죽곡초 | 3,4 | 20 | 염색, 다도 | |
| 7/12(수) | 고달초 | 3,4 | 15 | 염색, 다도 | |
| 7/13(목) | 석곡중 | 1,2,3 | 130 | 국악, 염색 | |
| 9/ 6(수) | 삼기초 | 3,4 | 20 | 목공예 | |
| 9/ 7(목) | 삼기초 | 5,6 | 24 | 목공예 | |
| 9/ 8(금) | 삼기초 | 1,2 | 14 | 목공예 | |
| 9/13(수) | 중앙초 | 4 | 111 | 국악, 예절 | |
| 9/14(목) | 석곡초 | 4 | 41 | 국악, 예절 | |
| 9/15(금) | 입면초 | 4,6 | 51 | 예절, 염색 | |
| 9/19(화) | 옥과초 | 2 | 71 | 예절 | |
| 9/20(수) | 옥과초 | 5 | 65 | 국악, 예절, 염색 | |
| 9/22(금) | 석곡초 | 1 | 26 | 예절 | |
| 9/27(수) | 석곡초 | 6 | 27 | 예절 | |
| 9/29(금) | 곡성중 | 1 | 168 | 국악, 효예절 | |
| 10/11(수) | 중앙초 | 5 | 142 | 국악, 예절 | |
| 10/24(금) | 입면초 | 3 | 60 | 예절, 국악 | |
| 11/ 8(수) | 중앙초 | 6 | 130 | 국악, 예절, 염색 | |
| 11/ 9(목) | 오산초 | 5,6 | 21 | 예절 | |

6) 교육기간 및 과목

| 월 | 학 교 명 | 과 목 |
|----|-------------------------------|-------------------------------------|
| 4 | 육과초, 중앙초, 죽곡초, 고달초, 석곡중, 특수학교 | 염색, 예절, 다도, 국악 |
| 5 | 육과초, 중앙초, 입면초, 죽곡초, 고달초, 오산초 | 국악, 예절, 염색, 다도, 목공예 |
| 6 | 죽곡초, 고달초, 입면초, 석곡초, 중앙초, | 국악, 다도, 염색, 예절, 수상식물, 야생화, 암석원 민속체험 |
| 7 | 석곡초, 입면초 | 자연관찰시설, 국악, 예절 |
| 9 | 삼기초, 육과초, 중앙초, 석곡초, 입면초, 곡성중 | 목공예, 예절, 국악, 염색, 효예절 |
| 10 | 중앙초, 입면초 | 국악, 목공예, 민속체험, 환경 |
| 11 | 중앙초, 오산초 | 국악, 예절, 염색 |

7) 교육장소

■ 곡성체험학습장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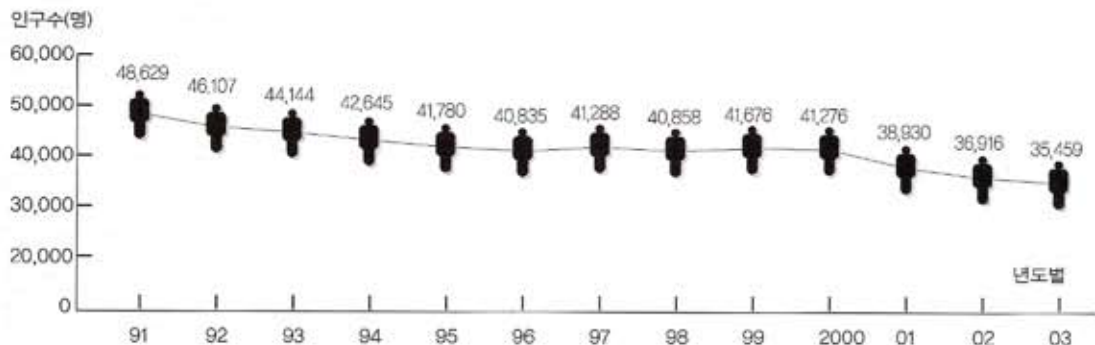
- > 건물 1층에 목공예실, 국악실, 천연염색실, 환경관, 민속체험실, 향토관, 효 예절실 등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체험학습실로 꾸며졌고 2층은 20명이 머물 수 있는 방 7개의 숙소가 준비돼 있다.
- > 운동장에는 과학동산, 암석원, 수중생물원, 야생화단지, 극기훈련장 등과 함께 아영 체험학습장까지 마련돼 학생들의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지역특성 분석

우리 조상들의 삶이 투영되어 전해 내려오는 전통문화와 예술 등을 곡성체험학습장에서 각 분야의 체험을 통해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

1) 인구통계 현황

- 우리나라의 많은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곡성군의 인구 역시 1990년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후반 한때 인구 지키기 운동 등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주춤했던 인구증가율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04년 기준으로 3만4천여명을 기록하고 있다.



2) 지역인구구성

- 곡성군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 60.4%, 2차 산업 6.7%, 3차 산업 32.9%로 1차 산업인 농업의 종사자가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나 전형적인 농촌지역임을 알 수 있다.

| 구 분 | 사업체수 | 종사자 |
|--------------|--------------------|---------------------------------|
| 1차산업 (60.4%) | 14,239 (가구) | 19,120 (명) |
| 2차산업 (6.7%) | 273 (가구) | 3,371 (명) |
| 3차산업 (32.9%) | 1,708 (가구) | 5,471 (명) |
| 합 계 | 14,232가구 / 1,988개소 | 19,072(농업(자영) / 8,917명(산업체 종사자) |

3) 문화환경

- 곡성군은 곡성읍권, 옥과면권, 석곡면권의 3개권역으로 나누어 져 있다.
- 곡성읍권에는 군민회관, 문화원, 공공도서관 등 대부분의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며,
- 옥과권은 곡성읍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미술관, 공공도서관 및 심청문화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곡성의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문화시설이 풍부하다고 하겠다
- 이에 비해 석곡권 등 이외의 곳은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구분 | 군민회관 | 복지회관 | 미술관 | 문화원 | 전수회관 | 공공도서관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기 타 |
|-----|------|------|-----|-----|------|-------|------|-----|------|--|
| 곡성 | 1 | | | 1 | 1 | 1 | 1 | 1 | 2 | 심청문화센터, 섬진강자연학습장 섬진강기차마을 곡성청소년야영장 봉조팜스테이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옥과미술관 조태일시문학관 전남과학대학 등 |
| 오곡 | | | | | | | | | | |
| 삼기 | | 1 | | | | | 1 | | | |
| 석곡 | | | | | 1 | | 1 | 1 | | |
| 목사동 | | 1 | | | | | | | | |
| 죽곡 | | 1 | | | | | 1 | | | |
| 고달 | | 1 | | | | | 1 | | | |
| 옥과 | | | 1 | | | 1 | 1 | 1 | 1 | |
| 임 | | 1 | | | | | 1 | | | |
| 겸 | | 1 | | | | | | | | |
| 오산 | | 1 | | | | | | | | |
| 총계 | 1 | 7 | 1 | 1 | 2 | 2 | 8 | 3 | 3 | |

4) 사회문제

- 곡성은 지리적으로 3개 권역으로 나뉘어 주변 지역으로 인구, 산업 자원 등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권역간 교류와 균형 발전이 시급한 상황임
- 인구 노령화 정도가 심한 편이며, 군민의 감소 추세이며, 지리산 기슭의 농업 중심 1차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 구조로 타 시군의 외부인구 유입방안이 절실히 요구됨

3. 교육프로그램 내용 및 진행과정

1) 환경분석 및 교육내용에 따른 커리큘럼 구성

- 1학기 60회 (회당 기본 3시수) / 2학기 60회 총 120회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 영역 | 프로그램명 | 세부내용 |
|------------|-------------|--|
| 전통생활 문화 | 전통미감의 이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곡성종합체험학습장과 연계하여 전통음악, 다도, 천연염색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정규교과과정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 이외의 곡성 관내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 -곡성지역강사를 활용한 지역 내 문화 인프라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함 |

2) 교육내용 구성 / 과정

- 프로그램 개요
 - > 우리 조상들의 삶이 투영되어 전해 내려오는 전통문화와 예술을 각 분야의 체험을 통해 이해하고 배우는 계기를 마련
 - > 체험학습장을 통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는데 든든한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프로그램
 - > 생활문화(자연관찰), 전통문화(국악), 예절문화(관혼상제), 문화예술(염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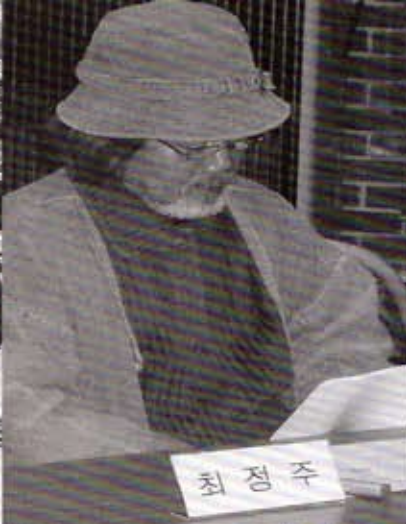
3) 결과 및 영향

- 곡성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모델의 창출
 - > 곡성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실행-평가과정을 수 있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모델을 창출하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주5일제를 겨냥한 가족 참여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
- 학교안과 학교 밖의 문화예술교육(사회문화예술 포함)의 환경을 개선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운영
 - > 공공적 차원에서 예술적 감성을 개발하고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문화여건을 개선하고, 창의력 있는 인재 육성과 학생 개개인의 문화예술 향유수준 및 감수성 제고
- 교육경쟁력을 확보하여 곡성인구의 전출을 방지하고, 타 시도의 교육인구의 곡성 전입을 추동 하는 역할 수행
-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 >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곡성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를 감소시키고, 타 시도에 거주하는 곡성 근로자의 지역 정주를 높이며, 장기적으로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여 타 시도 인구의 곡성 유입을 목적으로 수행 하도록 함

작가와 詩가 있는 오후

- 일시 : 2006년 1월24일(수) 오후1시
- 장소 : 곡성군민회관 소강당
- 주최 : 곡성문화원, 자운영독서회 · 설산의 향기독서회
- 후원 :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가 있는 오

■ 일시: 2007. 1. 24 (수) 오후 1시~5시 ■ 장소: 곡성군민회
■ 주최: 곡성문화원 ■ 주관: 자운영동협의회, 설산의향기독서회
■ 후원: 곡성군청, 곡성군청, 곡성교육청



악가와 시가 있는 오

07. 1. 24 (수) 오후 1시~5시 ■ 장소: 곡성군민회관 소강당
■ 후원: 곡성문화원 ■ 주관: 자운영동협의회, 설산의향기독서회, 새마을
■ 후원: 곡성군청, 곡성군청, 곡성교육청



나의 사랑은 꽃잎 같아라

김상희

오늘도 사랑하는 이의 소식을 듣네
나는 다시금 보랏빛 행복에 젖어드네
나의 사랑은 꽃잎 같아서
벨벳처럼 부드럽고 새의 깃털처럼 연약하다네
하지만 나는 그 꽃잎을 사랑하네
그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를 사랑하네
이 아름다운 계절엔 꽃잎도 더욱 성숙하더 지네
하늘빛을 담은 그 깊은 눈으로 나를 보네
그 눈빛 너무도 그윽하고 향기로우
난 잠시 태고적 심원으로 돌아간 듯 하네
나의 사랑은 꽃잎 같아서
바라만 보아도 감사와 기쁨에 젖어든다네

첫째아이, 둘째아이.....엄마

고백진

첫째아이는 자신감이 넘쳐 나는 아이,
칭찬받기 좋아하고, 낯살이 좋은 아이,
목소리가 큰아이,
사랑받고, 사랑을 보내 아는 아이,
그런 아이가 기록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때론 알릴기도 하다.
둘째아이는 부끄럼이 많은 아이,
조잘대기 좋아하는 아이,
말 따라하기 좋아하는 아이
그래서 누나한테 혼이 나는 아이,
엄마는
아이들 틈바구니 속에서
정신없이 편들어주기 바쁜 엄마,
엄마가 좋은지 서로 자기 엄마라며 다투기도 한다.
첫째아이와 둘째아이의
엄마는
행복한 미소를 지어본다.

예쁜나비

김골드

하늘나는
나비 참 예쁘구나
하늘하늘 나는 모습 참 예쁘구나
꽃 옆으로 가서
꽃에 앉아 있는 모습 참 예쁘구나
나비가
친구 만난 모습 참 예쁘구나
나비가
하늘 높이높이 올라가는 모습
참 예쁘구나
나비는 참 예쁘다

추억

김금지

높푸른 하늘 몸 흔들며
다정하게 거닐던 낙엽 길
하늘은 온통 햇빛만 가득하고
음악소리만 들린다면
그대를 그리워하며
가슴이 아련히 되살아나는
이 겨울 따뜻하게 보낼수 만 있다면
빛고운 사랑이 추억으로 남아있네.

봄

김다영

봄은
사람들의
행복 인가봐....
봄은 활짝 핀
꽃과 행복이 닮아서
봄은
꽃의 친구 인가봐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서
봄은
내 친구 인가봐....
봄이 나를 좋아하듯이
나도 봄을 좋아해서...

작은 소망

김미선

불하나 켜면 별 하나가 떨어지듯
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없어
그를 위해 꿈 하나 접으렵니다.
그가 세상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을 땐
그와함께 슬픈 가슴을 달래고 싶습니다.
그가 미워지려 할 땐
그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음을 그리며
마음을 비우렵니다.
살면서 더 많은 이력을 있겠지만
이해하는 마음과 사랑으로
천천히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무제

김정애

천고 마비의 황금의 계절에

오곡은 익어 씨앗으로 가고
 모채만은 초라하고 외롭게 서 있는 모습
 내 마음이 한층 괴롭다
 세월과 시계침은 일본도 지체없이
 새벽 3시 파식파식 지는 낙엽은 지고 싶어지랴
 가시는 님은 가고 싶어 가셨으리
 외로운 이봄하나 설명은 어데일까?
 머지 않은 여생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싸늘한 땅에 흙으로
 가는 날만 기다리노라
 희망도 설계도 없는 황혼에 인생 또 하루가 가는구나
 서산에 지는 해는 너 같길은 다 갔느냐?
 나의 같길은 몇십리나 되는지 답좀 해 주오
 동지첫달 긴긴 밤 홀로 앉아 마음대로 그려본 인생
 창밖에 가로등 환하게 불 밝히고
 누구를 기다리는지 너는 내 마음을 알겠지
 후회없이 미련없이 가고 싶지만
 영생의 문이 열리지 않아 내가 못간다

그리운 어머니 얼굴

김 정 오

그리운 어머니 얼굴
 고향 떠나 찾아온 바닷마을
 고향의 산들 향기 이내 없고
 낯선 냄새 그윽하다
 초가을인데도 추위는 먼저 찾아와
 고향생각이 나니
 문득 부는 바람이 더욱 더 시뻐다.
 맑고 고운 공기
 길가의 한들거리는 들꽃
 우뚝지고 아무진 앞산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
 올 겨울 더욱 쓸쓸하게 만든다.
 고향에 계신 보고픈 내 어머니
 지금은 무얼하고 계시까
 어느 날 길거리 빵집을 지나면서 본 경단
 유난히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인지라
 집으로 단숨에 달려가 드리고 싶지만
 그럴수 없어 보고픈내 내 가슴속을 뺨뚫다
 매일 먹는 밥,
 어느 곳에서 먹는 들 어머니 손맛과 같을까
 어머니가 해주신 따뜻한 밥이 먹고 싶다
 오늘도 먹는 객지밥이 더욱더 차갑다
 어머니와 함께 하고 싶지만
 꼭 신어야 할 근화
 그 시간동안 진정한 남자로 거듭나
 어머니 지켜드릴 생각하니
 2년이 길지 않다.
 어머니 보고픈 맘
 무슨 말로 형용하랴
 그리움만
 한없이 커간다.

눈 꽃

김 해 린

밤새 이루었나보다.
 이봄아침 길가에선 가로수들,
 앙상한 가지위에
 새하얀 것털옷을 입고 있다.
 소복소복 눈꽃 피워
 반짝이는 나무가지들이
 하이얀 미소로 아침인사한다.

설레이는 밤

문하정

저녁,
 내가 사는 세상은
 온통 은빛으로 빛을 발한다
 대문 앞에서 부터
 넓은 마당을 지나 와
 동백꽃잎의 빛깔을 띤 눈으로
 살포시 내려 앉아 부끄러운 미소를 터뜨린다
 심지어 내 마음속에도 내려 앉고 있다
 큰방에서 흘러나오는 할머니 기침소리만
 저 눈 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혼로 의롭다
 아이들 장난은 마당 귀퉁이 절구통 안을
 작은 놀이터로 만들었다
 애꿎은 로봇 장난감들이 스케이트를
 탄다고 이 겨울이 더욱 춥다
 한 여름 소나기라도 되듯 거침없는 눈
 때론 달콤한 솜사탕이 흩어지며 돌봄 사이사이
 촘촘히 내려 앉아
 울려다 본 밤하늘엔
 어둠은 다 사라지고 설레이는 마음만
 내 눈위에
 내 머리위에
 내 입술위에
 내 사랑위에
 지난밤 외로웠을 내 꿈속에
 은빛 개뿔벌레들이 흩어져 논다

가을이 되면.....

박 정 희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것처럼
 고독한자에게는 행복을
 단풍잎으로 채색시켜
 황홀한 세상을 만드네
 가을이 되면

무거워진 제 몸을
이별의 편지처럼
보내는 것도 떠나는 것도 아닌 희망으로
남겨두는 것 같아
햇볕에 물든 가을은
인생의 여정을 아는 것 처럼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사분 잎표.

의망

아다모프슈무코

울었네
너도 울었네
치켜 올리는 나의 손
정적의 숲
홀리떨어진 물방울
시간의 파도가 밀려오네
떨리는 작은 물
껴안고 울었네
들이 울었네
언젠가는 엄마 맘 알아주겠지
"아팠니? 미안"
마음속 깊이 되뇌이며
"아가 사랑해"
울먹이던 얼굴 환한 꽃 피었네
"엄마 사랑해"
달을 짚하는 너의 뒷모습
반짝반짝 빛나고 있네
올려다 본 하늘
붉게 물들며
노르스름해지는 구름 새
새어뜨는 햇살
다정히 감싸주네

겨울 바람

신 춘 자

떨경떨경
창문 두드리는 소리 요란한 밤에
어머님은
아가를 포대기에 포옥 싸서
따뜻한 아랫목에
토닥거리 재운다.
씨락 씨락 씨락 씨락
행자나무 가지 사이로
함박눈이 쌓이고
앙상한 겨울나무
춥다고 춥다고
밤새 웅웅거리도
이마에 축축하게 땀내음 풍기며
불이 뵈건 아가는

따뜻한 업마 품에
더더욱 파고든다.
날마다 똑같은 일상인 줄 알았는데
하루가 일년 되고
하루가 삼십년이 되어
언젠가
지나간 한 날
따스함이 그리워져
등그마한 어깨위로
꽃잎처럼 내리는 눈송이
하염없이 바라보며
작은 미소하나 지어본다.

와해

윤수민

새벽이 울고 있었다
감아 눌러뜨린 머리칼 속으로 비집고 들어와
온 몸뚱을 적신다
그대로 집 밖으로 달려 나간 새벽은
하얗게 몸서리칠 치며 세상을 흔들었다
한없이 뜰어내도 쌓이지 않는 마음의 보폭들이
일어치가는 어둠 속에서 잔잔히 식어가고
눈가가 짓무르도록 서글퍼하며 겨울을 기다리던
새벽은 다시 누군가의 기다림이 되어갔다
그래 그러기로 했다
이 아침을 아는 모두가 새벽을 놓아주기로 한다

아주

이현자

단 하루를 살아도
진실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은
나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나봅니다.
가끔씩
하늘을 올려다 보고
맑음속에서
세상을 비추는 빛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살아가면서
조금만 마음 너그럽게 살자고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이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것에 숙연해집니다.
축축히 비가 내리는
아주 깊은 밤입니다.
세상도 잠이 들어
숨소리조차 나즈막하게 들리는 이시간
채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서성거립니다.
창문을 스치는 빗방울들이
선을 그어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이내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할까요
진실한 마음으로
더욱 사랑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인연의 소중함을 나누면서
행복을 꿈꾸었습니다

가을 여행

임경희

푸르른 창공은 남빛 물들인
바다 같아
그대와 함께 뛰어 들고파.
하나들 웃음 베풀는
곧게 뻗은 가로수 길 따라
속삭이는 낙엽들과 함께
나만의 추억찾아
그곳에 가고파라.

호미

임미숙

오늘도 행복한 날 되라고
내일은
화창한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어야지....
내일은
간단한 태낭을 메고
무작정 길을 나서야지....
내일은
모자를 둘러쓰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영화를 보며 미지의 세계에 빠져 봐야지....
내일은
밀짚모자에 수건을 걸치고
그동안 모른채 해왔던 땃땃발을 예쁘게 해주어야지...
내일은
아이들이랑
마을앞 개울가에 가서
수영도 하고 다슬기도 잡아야지....
내일은
엄마랑 언니랑 전화해서
실컷 수다를 떨어야지....
내일은....
내일은....
내일은....
내일은
월요일까지 제출할 서류를 완성해야한다.
언젠가는 내가 하고싶은 내일이 온꺼라
믿으며 묵묵히 자판을 두드린다.
내일은..

가을 입맞춤

전미숙

사람을 사랑하며
사랑했던 사실을 잊었다
그러한 눈동자가 피어 있었다
싸리꽃 하얗게 떨어져 달린 길
화산재 하얗게 뿌리는 산길
참 역세를 가르며 불어온 바람이
뺨을 내밀어 입맞추었다
사람을 사랑하며
사랑했던 사실을 잊었다

가을

정가연

단풍이 울긋불긋
신이 난 아이는
추석에
뽕, 사과, 밤이 맛있어서
토끼와 놀고
나뭇잎이 살랑살랑
바람에 날아다니는 단풍
아이는
활짝 피어난 꽃
예뻐서 웃고 있는 아이들
놀까말까 재미있게 놀고
동물이 하나도 없네.
동생이랑 놀자.
동생도 유치원 가고 없네.
어떻하나
얼마 앞에서 놀자.

비오는날의 산행

주성재

보슬비 내리는날,
가벼운 우산을 들고 오르는 산행은
혼자만의 황홀한 시간!
청송맞다는 말을 뒤로 남겨두고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그 맛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비오는날의 山行은 우리의 인생살이와도 같다
타인들은 만류한다
미끄러울 것이라고.. 위험할 것이라고...
그러나 그 산행의 기쁨을 알고 있는 나는 묵묵히 내 길을 간다!
산행에서 오는 나만의 시간들...
소나무잎 끝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들으며

나무잎들의 애잔한 아우성을 들으며 바람을 눈으로 본다
 자연의 대단함에 탄성을 지른다.
 지난날들을 생각한다,
 다가올 날들을 생각한다,
 어느덧 정상이다
 남모르게 자신과 싸웠던 일들이 생각난다
 깊고 넓게 펼쳐진 雲海 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선택이 옳았음에 탄성을 지른다,
 정상에서 영원이 머무는 수 없는 사실에 안락까위하며
 내리막길을 향한다,
 바람과 빗방울과 나뭇잎들의 부딪침속에서
 인생의 성공보다 지나온 과정들 속에서
 그토록 찾고자 했던 幸福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비오는날의 산행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게 한다,
 다가올 날들을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되돌아 보게 한다.

봄 · 가을 그리고 우리

최선영

봄과 가을이 닮았듯, 너와 내가 닮았다
 봄은
 마른 땅을 더고 오른 새싹에 기대어
 푸르름을 뽐내고
 가을은
 지나간 여름의 아쉬움을 달래려 은풍 불고,
 화려하게 타 들어가 그렇게 아쉬움을 달래더라
 봄과 가을은 참 닮았더라
 메말라 있던 그 잔디에 새잎하며
 아쉬움 끝에 타들어 가면 그 가을이
 안타깝게 닮았더라
 너와 내 시간이 다르고
 너와 내 모습이 다르나
 우린 봄과 가을처럼 서로 닮았더라
 당신이 새것을 준비하는 푸른 봄이 라면
 그렇게 나는 당신을 닮아
 당신을 빛내줄 지는 가을이 되리라.

당신

고 통 실

오뉴월 땀별
 발 메다 부풀어 오른 껏가슴 부여잡고
 허위허위 내달아
 담가에 고이 잠든 아가
 억지 껏 물러가며 넌 기웠네라.

그 시절

고달픈 예기 하나 없는 이 없건만
 당신의 말씀은
 늘 꿈꾸듯

키오는 제 가슴 한복판을 가득 메웠습니다.

등 터오는 이른 새벽이라야
 바다는 너그러이
 해삼 오븐자기 구경기 보낼 미역 문어.....
 갓은 보물을 토해냈고
 태약을 짚어진 채
 땅사리 한가득 둘러메고 돌아오시던
 야원 돛매 부끄러이
 고무 옷 벗으시던 당신

담라의 孫으로
 물결과 밭일을 밧 삼아
 견뎌오셨을 세월의 앙금
 물사람들은
 담라의 여인네라 당차다고
 입바른 소릴 해 썼지만
 당신은 영원한 나의 비바리

어머니

유재구

어수룩한 밤녘에
 저만치 밝은 등 하나
 오늘도 어머니 눈 비비며
 기다리시는구나
 못된 아들녀석 기다리시며
 밤길 잃을까봐 불 밝혀
 애대우시는구나!
 언제쯤 철이 들어
 아들의 아들녀석
 어머니 기다리는 맘 헤아리려나.....

마흔 여음의 여침

이경례

땡! 땡! 땡!
 힘겹게 울려 퍼지는 보신각 종소리
 그리고 한살 더 먹은 내 나이
 마흔 아흔의 새해 아침이 밝았다.

이제는 그저 머리 속이 명하다
 아무렇지도 않다
 세월한테 반항하다 지친 벗일 터
 아쉬움도 미련도 없다.

막어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나이
 억지로든 절대로 먹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던 삼십대가 그림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기에...

세월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은 없다.

한살을 더 먹은 내가 참아야지
오십이 되었을 때
사십대를 그리워하지 않을 만큼만
더 열심히 살자.

유년의 일기

신금순

어느 비 오던 날
유년의 일기를 꺼내본다.

어릴 적 나만의 공간
유년일기

어릴 적 꿈과 희망이
담겨 있는

말할 수 없던 고민도
담겨 있는

어릴 적 나만의 공간
유년 일기

지금 보면 너무나도
순진했던 꿈과 희망

웃음만 나오는
유년의 고민들.....

이제는 할 수 없는
그런 꿈과 고민

하지만,
연젠가는 하는 실은.....

어느 비 오던 날
유년의 일기를 꺼내보며

끝나지 않을
유년의 일기를 읽는다.









생태문화대행사
5 조
곡성문화원

1 조

5 조

국악

생태문화대행사
4 조
곡성문화원

생태문화대행사
3 조
곡성문화원

곡성문화원

곡성문화원 문화예술진흥추진 사업

곡성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지방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관광부 산하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곡성군민들의 향토 문화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증진시키며 군민의 문화 예술적 감성을 개발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의 사업

1.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7. 기타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주요 사업

문화행사의 개최

- 유명예술인 초청 강연회 • 효녀심청 유치부 사생 대회 •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 효녀심청 전국 어린이 예술공모전
- 선진생활문화 강연회 • 청소년 향토문화 강연회 • 05, 06, 07 학교 문화예술교육 시범 사업
- 호문화관광대학 곡성군 문화관광해설가 교육 • 지리산 생태문화 탐사 및 탐사단 교육
- 작가와의 만남(이청준, 이금배, 백시중, 이순원, 한승원, 고재중, 곽재구 시인 등)

문화교실

- 다도강좌 • 서예강좌 • 외국어 회화 강좌 • 외국인 문화예술 강좌 • 곡성여성연극단 창단 및 운영
- 곡성어린이연극단 창단 및 운영등

문화에 관한 자료 수집·보존 및 보급

- 지역향토자료 조사 • 내고향 곡성 발간 • 어린이신문 발간 • 내 고장 인물 및 유적지 안내도 제작
- 곡성역 관광안내도 제작

향토사료 발간

- 곡성 세시풍속 • 곡성의 문화재 • 월파집 • 청계동사 • 곡성누정록 • 국역 조선환여승람 곡성편
- 충청공 마천목장군 • 곡성실록(조선왕조실록 곡성편) • 사찬 곡성군지 • 곡성의 지리지 • 곡성방목
- 곡성의 농요·속요집, CD곡성의 지리지 • 이외 20여종 발간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 교육 활동

- 향토 문화 유적지 순례 • 가훈 및 휘호 써주기 • 전통차 보급 및 시음회 • 고대인물 알리기 및 서화 전시회